

별망으로 가는 마지막 길을 걷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이 땅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59장 8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3월 13일 (토) 제 1817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본색 드러낸 민주당 '평등법' 결사반대!

NPR, 성소수자 권리만 확장...주 내용과 보수진영 반대물질 소개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성소수자(LGBTQ) 권리확대법안, 일명 '평등법'(Equality Act, H.R.5)이 지난달 25일 하원을 통과했고, 3월 3일에 상원 다수당 대표(Chuck Schumer)는 특별 조항을 사용해 위원회들을 거치지 않고 "평등법"을 곧장 상원으로 상정했다. 이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트랜스젠더/동성애 특혜확장 정책들에 사인한 조 바이든은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하원은 성적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고용·주거·공공시설 접근·기타 서비스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권법 개정안을 표결

에 부쳐 224 대 206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2019년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 다수인 상원에서는 부결된 바 있다.

성소수자들은 작년 9월 조 바이든 대선캠프에 2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몰아쳤고, 바이든은 "취임 후 100일 내에 평등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마디로, 이 법은 1964년 민권법에 성소수자 포함이 주 목적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진보주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House Passes The Equality Act: Here's What It Would Do).

법안 공동 발의자인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59·민주·로드아일랜드)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법 의지를 강조하며 "모든 미국인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평등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집 로이 의원(48·텍사스) 등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소속 의원들은 회견을 열고 "이 정부는 권력을 이용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마저 결정해 주고자 한다. 소수 특권층의 의지에 굴복하기를 원한다"고 반발했다.

로이 의원은 또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인들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입법을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가톨릭 주교회의 역시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카톨릭교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아이러니다.

동 법안이 하원에 상정되기 전부터 5명의 미국 가톨릭 주



교회의 의장들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편지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편지에는 "평등법은 동성애적 끌림이나 성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신 이 법안은 개인과 조직의 '성별'에 대해 새롭고 분열을 초래하는 관점에 대한 의회의 시행을 대변한다. 이는 성적 차이를 무시하고 '성별'을 사회적 생각(social construct)으로만 거지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전면적인 조치는 의회에서 통과돼 법에 서명된다면, 성,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기

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을 개정하게 될 것이다.

"비극적으로, 이 법은 생명과 양심에 대한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낙태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기존의 실질적 보호를 의미 있게 뛰어넘는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긍정하기보다는 평등법이 신앙인을 차별하게 될 것"이라고 편지는 주장했다.

주교회의는 미국 최대의 민간 복지 제공자인 가톨릭교회가 매년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교구, 학교, 병원, 대피소, 법률 클리닉, 푸드뱅크, 기타 자선단체를 통해 돕는다"고 밝혔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동일한 핵심 신념은-내재된 존엄성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삶, 결혼, 그리고 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가장 취약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에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썼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은 백악관에 임명하게 되면 LGBT 활동가들이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대부분의 제안(Human Rights Campaign)을 즉각 이행할 계획이었다.

바이든이 제안한 의제는 트랜스젠더로 확인된 개인이 군대에 입대하도록 허용하고, 트랜스젠더로 확인된 군인이 여성 전용 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군인들을 위한 성전환 수술 및 교차 성호르몬 투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모든 정부계약자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정책을 요구할 계획이며 국방부, 국가보안국과 기타 연방기관에서 LGBT 권리담당 직책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3면으로 계속)



팬데믹 여전, 대부분 온라인으로

미주한인교회 정기총회 교단별 일정발표

미주내 한인교회 총회가 일제히 개최된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교단 총회가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년에는 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기대했으나 올해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으며 일부 교단은 잠정 연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줌을 이용해 화상으로 개최했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는 5월에 열리는 제 45회 총회도 지난해와 같이 화상으로 열며,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이기성 목사)는 지난해 총회를 연기했으니 올해 5월 열리는 제 45회 정기총회는 19개 노회 중 17개 노회의 찬성으로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NCKPC, 총회장 최병호 목사)는 지난해 총회를 연기해 오는 5월 19일 열리는 제 50회 총회는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 줌을 이용한 화상총회로 열린다. (3면으로 계속)

일시	교단명	진행방법
4월 13-15일	연합감리교회한인총회	온라인
4월 19-21일	미주성결교회	온라인
5월 4일	기감미주자치연회	온라인
5월 11일	해외한인장로회	온라인
5월 15-18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온라인
5월 19일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	온라인
5월 29일	얼라이언스 한국총회	온라인
6월 14-17일	미주남침례교 한인총회	대면(현재)
8월 16-18일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대면



시론 최혜근 목사 3면



푸른초장 이의철 목사 4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윤임상 교수 14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cbook.org / jcbook@hgm.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는 필라델피아 교외에 위치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소속 교회로서 1974년 창립한 이후 47년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화목하고 섬기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현재 담임목사님이신 김풍운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심에 따라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본교단(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인준하는 정규 신학대학원(Master of Divinity 또는 동등학위)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미국에서 5년 이상 담임 목사나 부목사로 사역하신 분
- 2 중언어(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지자)

제출서류

- 한글과 영문 이력서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과 가족 소개 포함)
-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 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 1부
- 목사 안수 증명서/소속 증명서(노회발행) 각 1부
- 목회자가 직접 보내는 연락처가 포함된 봉인된 추천서 3통
- 최근 1년 이내의 실고 동영상 2편 (web link)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1550 Woodbourne Road Levittown, PA 19057
www.buckscountychurch.org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후 안전하게 폐기되고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위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립니다.

발행인 칼럼

친구의 빈자리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내겐 지금 친구가 없다. 친구가 없어도 이렇게 지내왔다. 친구와 너무 멀리 있다. 서로 너무 바쁘다.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다. 친구의 빈자리는 누구도 채우지 못한다.

오시다. 사역 때문에 달리고 달리면서 간혹 느끼긴 했지만 이제는 친구의 빈자리 때문에 힘들고 서럽다. 모든 주제의 이야기를 서로 털어 놓아도 달은 안 나고, 쓸쓸한 재미는 넘치고, 잊었던 지난날의 눈과 두려웠던 새로운 날에 대한 눈을 동시에 뜨게 해주는 경이로운 친구가 그립다.

그는 누군가. 김재진. 내 친구는 아니다. 만나 빈 적 없는 시인이시다. 그 분이 쓴 시 "친구에게"가 마음에 와 닿는다. "어느 날 네가 메마른 들꽃으로 피어/ 흔들리고 있다면/ 소리 없이 구르는 개울 되어/ 네 곁에 흐르리라/ 저물녘 들뜬에 혼자서서/ 네가 말없이 어둠을 맞이하고 있다면/ 작지만 꺼지지 않는 모닥불 되어/ 네 곁에 타 오르리라/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네가 누군가를 위해 울고 있다면 손수건 되어/ 네 눈물 닦으리라..." 시인의 친구는 대단하시다.

사람 속에서 잠자던 편지를 일으켰다. 그 친구는 나를 "두꺼운 입술"이라고 부른다. 인정한다. 거울을 보면 나의 입술이 얇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때는 실수인척 하면서 "두꺼비 입술"이라고 쓴다.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미국에 있고 그 친구는 한국에 있다. 그 당시에 그는 물리학 공부를 위해 미국에 있었고 나는 한국에 있었다. "두꺼운 입술에게, 꿈에도 그리지 않던 너의 두터운 목소리를 오늘 들으니 자못 옛 생각에 마음이 산란되도다. 한 때를 구가하던 우리의 젊음도 벌써 30 오르막...나사렛 예수. 갈릴리 지방에서 형성처럼 나타난 신의 어린 양.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예수. 그를 그토록 고민하게 했던 감람산의 마지막 밤. 그는 무엇 때문에 고민했을까. 신의 아들 예수의 피와 땀. 감람산에 뿌려진 그 고육의 의미 무엇인가...전능자의 아들, 창조주. 그 예수가 눈물을 피처럼 쏟는다... 그가 잠시 동안 받은 육신의 생. 30여년 인생을 하직하는 그 마지막 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두꺼운 입술. 말해 보게나... 신실한 나의 친구 두꺼운 입술. 잘 있게...큰 뒤통수" 친구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했다. 특별히 신의 아들, 전능자의 아들, 창조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이유를 나에게 물었다.

내게 친구, 큰 뒤통수의 빈자리가 있듯이 그에게 두꺼운 입술의 빈자리가 있을 것이다. 서로 그 빈자리에 고난의 예수님이 영원한 친구로 계신다. 우리 친구끼리 이야기 범위는 수십 년을 넘지 못한다. 친구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이다. 고난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친구, 큰 뒤통수의 빈자리는 그림다. 친구, 예수님의 자리는 놀랍다.

팬데믹 상황...사순절 금식 안전할까?

UMC, 코로나19로 인한 면역체계 불안정 상황에서 금식 가능성과 의미 제시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돼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으로서 전통적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금식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다. 많은 사람이 일년내내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을 미뤘지만 사순절만큼은 금식을 통해 참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하는 시기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1년 넘도록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고,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

하고 있고, 백신이 나왔지만 수많은 변형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올해 2021년 사순절에 많은 크리스천이 금식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우리의 면역체계가 위협에 있는 지금 금식은 안전한 것인가?

백신이 나왔지만 수많은 변형 바이러스가 나타난 올해 2021년 사순절에 많은 기독교인이 유행병 기간에 금식이 안전한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Fasting during Lent 2021).

면역체계의 약화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의 관계는 분명히 있다.

미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에 따르면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코로나바이러스-19에 걸렸을 경우 더 심각하게 앓을 수 있다는 말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역시 같은 설명이다. "젊고 면역력이 정상인 환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였고, 감기 치료제로 치료가 됐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적극적인 치

료를 받았어도, 치료가 어려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면역체계의 약화와 우리가 사순절 기간 하는 금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면역체계를 수면부족, 스트레스, 운동부족, 과음, 흡연 등으로 약해지는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인 편견과 반대로 오히려 금식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말한다.

포브스에 따르면 간헐적 금식(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금식)은 백혈구의 상당부분을 분해하지만, 이러한 백혈구의 감소는 새로운 면역체계 세포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의사는 한 번에 오랜 기간을 금식(36시간 이상)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또한, 60세 이상이거나 코로나바이러스에 잠재적으로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

건강한 경우 60세 이하 혹은 바이러스에 노출 가능성이 없다면, 2021년 사순절에 금식을 할 수 있다. 사순절 기간 일주일 에 한 끼를 먹지 않는 금식부터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 혹은 40일 동안 정기적으로 한 끼를 정해서 먹

에 할애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신의 행위를 함께 해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식사를 거름으로써 금식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선 여러 가지 금식의 대안들이 있다.

1. 미디어 금식

21세기 디지털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음식만큼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업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일까? 아마 인터넷, 소셜 미디어, 게임 등일 것이다.



정기적 간헐적 금식은 면역체계 세포 새롭게 해 미디어금식 대안금식 탄소금식 등도 시도해봄직

료를 받았어도, 치료가 어려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면역체계의 약화와 우리가 사순절 기간 하는 금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면역체계를 수면부족, 스트레스, 운동부족, 과음, 흡연 등으로 약해지는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인 편견과 반대로 오히려 금식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말한다.

포브스에 따르면 간헐적 금식(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식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결론적으로 제일 보편적인 형태의 하루 한 끼 금식으로 인해 인간의 면역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정기적인 간헐적 금식으로 인해 면역체계 세포가 새로워진다.

그러나 60세 이상이거나 바이러스에 노출 가능성이 있으면 24시간 이상의 오랜 기간 금식은 권고하지 않는다.

지 않는 금식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상 혹은 다른 이유로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는 금식을 할 수 없다면, 육식을 먹지 않는 것(금육) 또한 보편적 참회의 행위로 간주하며 금식 대신 선택해서 사순절 기간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금식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음식과 음료를 삼가 하는 금식 그 자체만 실천할 것이 아니라, 금식기간 더 많은 시간을 기도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중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성인들은 평균 하루에 2시간가량 소셜 미디어를 하는 데 소비하며 이는 그들의 평생이란 시간에 비교할 때, 약 5년4개월과 맞먹는다. 이 시간은 약 만번 이상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시간이며, 지구에서 달까지 32회 왕복할 수 있는 시간이다. 즉 그들 인생의 5년4개월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심대들의 경우 소셜 미디어 중독은 어른보다 더욱 심각하다. 심대들은 하루 평균 약 9시간을 소셜 미디어를 하는 데 소비한다.

(4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a dental clinic.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the LA and NY offices.

Large advertisement for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detailing requirements, exam subjec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본색 드러낸 민주당 ‘평등법’ 결사반대!

(1면에서 계속)

당시 바이든 캠페인의 웹사이트에는 이 같은 의제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 '미국과 전 세계에서 LGBTQ+(성소수자) 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바이든 계획'이라는 문서가 수록됐다.

이 문서는 "평등법(Equality Act)은 성소수자(LGBTQ+) 미국인을 위한 법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수단이며 성소수자(LGBTQ+) 개인이 기존의 시민권법에 따라 보호되도록 보장 할 것"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바이든은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 순위(top legislative priority)로 강조해왔다.

이뿐 아니라 바이든은 성소수자(LGBTQ+) 가정을 차별하는 입양 및 위탁보호 기관에 연방기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방 계약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해 "인종, 성별, 성적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노동자 및 계약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해 시민 지도자와 협력할 것"을 발표했다.

또 이 계획은 "미 국방부에 트랜스젠더들이 공개적으로 복부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든 트랜스젠더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분확인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정부 문서에 성별 표시를 'M', 'F' 또는 'X'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

다"는 조항도 있다.

바이든은 또한 트랜스젠더로 신원확인 된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로 지정된 시설을 사용하는 대신 선택한 성별 정체성에 해당하는 욕실, 라커룸 및 샤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침을 복원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계를 비롯한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바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기가 평등법에 결사반대하는 주 동인이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교수인 더글라스 레이콕(Douglas Laycock)



은 2019년 도입 이후 평등법을 비판해오고 있다. 그는 연방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추가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이 법안이 차별 주장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방(LGBTQ+)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다른 당사자의 권리를 파괴하려고 시도한다"며, "우리는 각자의 정체성과 가치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양측의 자유를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평등법 반대자들의 또 다른 주요 두려움은 LGBTQ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종교적 반대를 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법을 따르는 것 중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2019년 민주당의 만장일치(8명의 공화당원의 지원)와 함께 평등법을 통과시켰고 현재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통과됐다.

아직 상원은 더 불확실하다. 상원의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을 거의 지지한다.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석 2개가 민주당으로 넘어가 지금 상원의 공화당/민주당 비

율은 50대50이며 동률인 경우 결정표를 던지자 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당연히 이 악법을 강력히 지지한다.

다행인 것은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없이 통과하려면 총 60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거의 다 찬성할 것이 예상되며, 공화당 상원들중에서는 누가 찬성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결국 크리스천들은 상원의원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긴급전화/이메일로 보내야 하며,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팬데믹 여전, 대부분 온라인으로

(1면에서 계속)

연합감리교회한국총회(KUMC, 총회장 류재덕 목사)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편 기감미주자치연회(감독 임승호 목사)는 5월 4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미주성결교회(총회장 김동욱 목사) 제 42회 총회도 4월 19일 남가주 산샘교회서 화상으로 진행된다.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총회장 김명옥 목사)는 지난해 총회를 연기했으나 올해도 예정된 4월 총회는 하지 못했으며 오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뉴욕프라이미스교회에서 대면 정기총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

미국장로회한국교협(PCAK-CKC)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로 예정했으나 10월 초로 연기하고 대면 정기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RCA한인교회협의회 전국총회는 최근 각 지역교협들이 몇 가지 옵션을 두고 화상회의를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급년에는 신학적인 이슈와 조직구조적인 이슈가 있어 총회가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미남침례회(SBC) 한인교회총회(총회장 이성권 목사)는 미남침례교



와 동일하게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테네시 주 내시빌 굿레즈빌제일침례교회에서 열린다.

또 얼라이언스(총회장 문형준 목사) 한국총회는 5월 29일부터 한국의 동탄그레이스교회에서 개최한다. 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편집부)

시론

코로나 백신과 신앙인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주말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존슨앤존슨의 코비드-19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기존의 파이자 및 모더나 백신에 이어 존슨백신까지 갖게 됨으로써 접종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백신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존슨백신은 기존의 백신과는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른 백신입니다. 기존의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부분(인체와 연결되는 다리 역할)의 유전정보(mRNA) 우리 몸에 주사하여 우리 몸으로 하여금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한 후 이렇게 생성된 단백

질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존슨백신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부분에 해당하는 유전정보(DNA)를 사람에게 위협하지 않도록 변형시킨 아데노바이러스에 입력하여 아데노바이러스를 변형시킨 후 인체에 접종합니다. 인체에 들어온 아데노바이러스를 통해 스파이크 프로틴이 형성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파이크 프로틴과 싸우기 위해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존슨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26이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구촌 일부의 사람들은 아데노 바이러스 26에 이미 노출된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존슨백신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결과를 보면 아데노바이러스26의 항체보유자들이 태국, 브라질 그리고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지역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며 이들에게서는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존슨백신은 알러지가 없고 상온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던 Lipid 물질이 존슨백신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온에서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함으로 인해 특별한 의료기구가 없는 산간지역 접종에 대단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회 접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백신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도 반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국제항공여객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촌 전체가 1회씩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747회 비행기가 운항해야 한다고 합니다. 2회이나 1회이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셋째, 현재 종교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셀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존슨백신에 사용되는 아데노바이러스 26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공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셀라인이 감당합니다. 셀라인은 특정한 부위의 세포를 계속해서 복제하여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존슨백신의 경우에는 PerC6라는 셀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erC6라는 세포는 최초 1985년 네덜란드에서 낙태된 태아의 망막세포를 사용하여 이후 복제과정을 거쳐 셀라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초기 실험단계에서는 HEK293이라는 셀라인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1973년 네덜란드에서 낙태된 태아의 신장(콩팥)세포에서 채취한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처음 실험단계에서만 휴먼 셀라인을 사용했고 이후 제조과정에서는 더 이상 셀라인을 사용하지 않는데 비해 존슨백신은 계속해서 셀라인을 사용하여 제조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 부분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신앙적으로 이 부분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조할 내용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Zika 바이러스와 Ebola 바이러스 백신을 제조하여 사용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신제조에 인간 셀라인이 사용된 것과 관련되어 이 영역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례입니다. 누군가에게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을 해친다면 그것은 명백히 죄악된 행위이지만 사고를 당해 뇌사가 된 사람의 장기를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하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이식하여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해본다면 우리가 선택할 방향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이 되면 코로나가 한 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값진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hankschoi@gmail.com

출판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His Finger)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합니다.
누구나 짧은 길던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됩니다.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히즈핑거 (His Finger)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매운 맛

앵그리 너구리, 불마왕 라면, 불닭볶음면, 엽기떡볶이... 모두 매운 식입니다. 생각 만해도 입에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더 매운맛’, 그리고 고통스럽게 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극강의 매운맛’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햄버거와 피자를 먹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매운 음식을 즐기는 것을 보면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건강상

의 이유로 많이 자제하지만, 과거에는 2단계나 3단계 매운 짬뽕을 먹고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운 맛은 혀로 느끼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과 같은 미각이 아니라 피부와 신체 내부에 “PAIN”아픔을 느끼는 통각이라고 합니다. 고추 속에 캡사이신(Capsaicin)의 자극을 받은 삼차신경이 대뇌에게 신호를 보내면 대뇌가 우리로 하여금 통각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매운 맛이 있습니다. 음식의 매운 맛을 안다고 인생의 매운 맛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음식의 매운맛을 즐긴다고 해도 “인생의 매운 맛”까지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매운 맛은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매운맛입니다. 40년 광야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면 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생의 매운 맛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축제를 열며 방종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원망하다가 독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 매운 맛 좀 볼래? 너! 뜨거운 맛 좀 볼래?” 하며 특하면 화를 내고 진노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섭

고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인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청양고추가 들풍 들어간 짬뽕 국물을 들이켜 허가 알알하고 눈물이 나는 것 같은 매운 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강의 매운 맛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장차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주

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극강의 매운 맛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아무도 영원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매운 맛을 경험하는 분을 아십니까? 극강의 매운 맛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할 분을 아십니까? 그 분이 음식의 매운 맛을 즐겨도 인생의 매운맛은 피할 수 있도록 그분을 새생명 축제에 초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푸/른/초/장

이의철 목사
(뉴저지은혜제일교회)



시간의 가치란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애인을 기다리는 종각에게 물어보세요.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방금 기차를 놓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세요.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사고의 순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물어보세요.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시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세요.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 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스피전 목사님은 “춧볼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

빛을 받고 감사하면 영원한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7, 48절에 보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네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고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는 학식이나 지위, 재물을 자랑했지만 은혜 받은 후에는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같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한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과,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귀한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고린도전서 16장 23-24절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

1)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의 삶을 삽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2)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자랑

길 몰라 방향할 때에/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신 사랑입니다(롬5:8).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삽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bainfo@gmail.com

팬데믹 상황...

(2면에서 계속) 이처럼 소셜 미디어가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순절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간을 절제함으로써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미디어 금식의 주된 목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미디어 금식이란 어른이나 심대 할 것 없이 하루 한 끼 금식보다 더 힘든 금식이 되겠지만, 온 가족이 함께 스마트 폰과 태블릿을 사순절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사순절 묵상이나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3. 탄소 금식 2021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전미 지역 40여 개의 주에 걸쳐서 겨울 기상경보가 발행됐고, 텍사스주 등 남부지역에 역사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고,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미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2월에 미국을 강타한 폭설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이 더위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이처럼 텍사스에 눈이 내리고, 북극의 눈이 녹고, 2019년 전 세계를 강타한 폭염의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기상기구(WMO)는 전 세계에 기록적인 더위가 확산된 것은 장기적 지구 온난화 경향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류가 사용하는 화석연료, 석탄과 석유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다.

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탄소금식이다. 탄소금식을 통해 쓰지 않는 플라스틱 그릇을 빼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대신 개인 보온컵과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축산과정에서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고기 먹는 것을 자제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하며, 정기적으로 타이어 체크를 하며, 꼭 필요한 만큼 물을 끓여서 일상생활에서 다소 불편하지만 온난화 현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금식은 초기부터 초대교회의 일부였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금식은 죄와 방탕한 삶에 대해 참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중요한 신앙 행위였다. 또한 금식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금식하는 동안 더 많은 시간을 기도와 묵상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어떤 사람은 식사를 삼가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텔레비전, 소셜 미디어 혹은 쇼핑 등을 삼가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육식이나 커피, 초콜릿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삼가함으로써 금식을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참회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되돌아온다.

2. 대안적 금식 전통적으로 하루의 한 끼를 거르는 것이 금식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고 사순절 동안 먹지 않는 것도 금식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에 포기하고 먹지 않는 음식은 커피,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이다. 또한 패스트푸드, 금주, 정크푸드, 좋아하는 간식, 또는 탄수화물을 사순절 동안 절제하며 대안적 금식을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서 배출

많은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따뜻한 물로 샤워, 헤어드라이어 사용, 전기 주전자, 자동차 이용, 노트북 사용, 전기밥솥, 수입고기, 가스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배출된다.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서 배출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p>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p>	<p>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org/kor/index.php</p>
---	--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라김 사도 (TVNG 설립자, TVNEXT.org)

“평등법 H.R.5” 하원 통과 상원으로...반대서명 서둘러야

악법, “평등법” 또는 “포괄적 동성애 인권법안” 하원 통과!

지난 2월 25일 하원에서는 최악의 반기독교적이며 자녀 정체성 파괴하고 역사 별하는 악법 “Equality Act-평등법”이 224 대 206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224명, 2명 제외한 민주당 전체와 3명의 공화당하원들이름은 나중에 제공하겠습니다)과 반대 206명, 4명 제외한 공화당 전체와 민주당속 미시시피 하원인 Bennie Thompson.

상원에 올라감! 지난 3월 3일에 Senate Majority Leader인 Chuck Schumer는 특별 조항을 사용하여 위원회들도 거치지 않고 “평등법”을 곧장 상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미 대통령행정명령으로 트랜스젠더/동성애에 특혜확장 정책들을 사인한 조 바이든은 “평등법”은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서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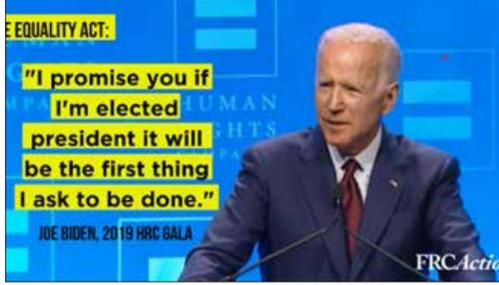
따라서 언제 악법이 상원에서 통과될지 모릅니다. 긴급히 Action을 취해주세요! 1분도 안걸리는 서명방법은 Tvnex.org에 가서서 이 기사와 비슷한 제목을 찾으면 나옵니다.

H.R.5 이름에 절대 속지 마세요! 이름과 완전 반대의 정책, 역사별하는 법안입니다.

“Equality Act-평등법”: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은 “a comprehensive LGBTQ+ civil rights bill(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고 부름.

미국 역사상 최악중 최악의 법안이 될 평등법 -H.R.5가 통과되면 무슨 일이?

1. 유아원에서(Kinder)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서로 실험/연습하도록 장려되며, 성별 대명사를 각자 골라서 요구하는 것을 배워 집과 교회서까지 자신들의 성별대로 불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LGBTQ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 스포츠를 제공하는 게 미전역에 합법화됩니다.

3. 남자 아이들이 여자트랜스라고하면, 여자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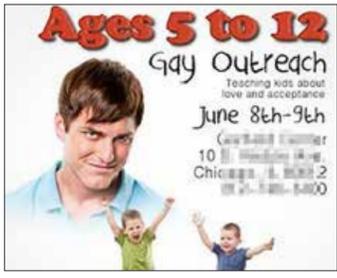
550개의 성적으로 이탈한 성도작용을 정상화시키는 단어들 포함되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성향”으로 통과시킨(SB1172) “소아성애-Pedophilia”가 이제 현 바이든 정부의 “평등법”에 의해 “소아성애자”도 다른 성도작용 범죄자들과 함께 보호받게 됩니다.

7. 평등법에는 기독교를 보호하는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1993)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삶의 모든 터전에서 억압을 받게 됩니다(학교뿐 아니라 기독교학교, 교회, 비즈니스, 단체 포함!)

‘소아성애’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념하는 인권운동조직 B4U-ACT

이 단체는 스스로 “(소아성애)사람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30여명의 credential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게 끌리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 함께 노력”하는 단체라고 소개합니다.

이 단체는 소아성애자에 대한 새로운 어법을 소개하며 “미성년자에게 끌리는 사람(minor-attracted person)”으로 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 같은 텐트에서 캠핑 및 하룻밤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어린심대들에게도 사춘기차 단제 호르몬, 절단수술, 화학 및 외과적 낙태에 대한 보험까지도 학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이제는 대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임신센터가 낙태추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5. “평등법”을 비준수하는 교회와 학교나 단체들은 연방, 주정부 및 지방 세금면제 및 인증을 잃게 됩니다.

6. LGBTQ의 “Q”에는 악

son)으로 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법을 못 막는다면 반기독교 성향이 짙은 대도시들뿐 아니라 미국 전역이 악법을 수반(comply)하기 위해 소동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사악한 죄악을 하남 앞에 범하게 될 것입니다.

소동과 고모라는 동성애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했는데,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트랜스젠더, 쿼어(성별/생각/몸을 바꾸는)”가 되도록 정치화하여 죄를 죄로 부르지 않는 그 엄청난 거짓과 혼돈시키는 죄를 어떻게 치르게 될지요!

크리스천이라면 직분을 떠나서 다시 오셔서 죄를 확실하게 판단하실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며 무릎 꿇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 용감히 일어나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외 훨씬 더 많은 반대해야 할 이유들은 이전에 적은 링크에 가서 참조하세요

url: http://tvnext.org/2021/02/oppose-equality-act/

동성애 운동단체인 LG-BTQ Nation은 쿼어에 대해 설명하길, “LGBTQ의 Q는 LGB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성적 지향과 성별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이 젠더중립적(gender-neutral, non-binary), 젠더(ager) 플루이드(genderfluid), 범섹슈얼(pansexual), 무성애자(asexual), 솔로 섹슈얼(solosexual) 또는 LGBT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것이라고 해도 Q가 당신의 정체성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만 서명하지 마시고 온가족들 것도 해주시고 주위에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역의 상원들이 이 역할에 앞장서게 될 H.R.5에 꼭 반대하도록 여러분의 지역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의: Tvnex.org@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구약의 장막성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배를 상징한다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윗시대에도 모세의 장막성전과 똑같은 장막성전이 있었는데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성전의 예배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장막에 관한 여러 가지 명칭을 소개하면 1)장막(tent) 2)성막(tabernacle)-거룩한 장막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3)성소(sanctuary)-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성소라고 합니다. 4)회막(tent of meeting)-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입니다. 5)증거막(tent of testimony or witness)-이 장막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과의 만남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죄를 용서받으시고 하나님과 만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은총의 장소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가 장막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진리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선택된 특별한 장소가 바로 이 장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가운데 세워진 장막을 보며 이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God is with us). 질문하신대로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은 같은 장막이나 예배 면에서 차

모세의 장막은 짐승피의 제사, 다윗의 장막은 찬양과 기쁨의 예배

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노래나 찬양이 없고 늘 피와 짐승 냄새만 진동하며 오직 엄숙하고 정적만이 흐르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는 달랐습니다. 노래와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대상15:16). 찬양이 있고 박수가 있고 춤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외침과 할렐루야, 아멘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5:1-6절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예배를 위하여 대규모의 찬양단과 관현악단을 조직하였습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모집하여 38,000명을 선발,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로 삼았으며 이들은 전적으로 찬양분역을 담당하였고 찬양을 인도하는 등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 때부터 조직적인 찬양이 히브리 예배의 영구적 특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삼, 헤만 여두둔이란 세 지휘자를 세워 찬양대를 조직적으로 그리고 규모있게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모세의 장막과 가장 다른 점 중 하나입니다. 모세의 장막에서는 제사장의 감정이나 혹은 감정의 고백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장막 예배에는 성령의 기쁨 부음과 신령한 노래(찬양과 예언의 영이 넘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솔로몬이 이어받아 계속됩니다.

“다윗이 군대장관들로 더불어 아삼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호가 이러하니라 아삼의 아들 중 사금과 요셉과 느다냐와 이사벨라니 이 아삼의 아들들이 아삼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좇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대상25:1-2) 신령한 노래의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말로서, “노래로 예언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가장 중요한 점이자 모든 예배자들이 꿈꾸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날 찬양대나 찬양인도자들은 단지 음악으로서의 찬양으로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그 영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성령님의 기쁨부음을 사모해야함을 보여줍니다.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윤진석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82)2-2646-3181-3, Fax. (82)2-2646-3184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2-996-9998, Fax. 9927-1008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승동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Tel. (02)732-2341-3, Fax. (02)389-2235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968, Fax. (011)82-2-842-1968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Tel. (82)2-3142-0481, Fax. (02)422-0751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병환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9-4813, 331-284-7204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Tel. (02)942-6881, Fax. (02)942-688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Tel. (82)32-527-1009, Fax. (82)32-527-1009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9-4508	청주주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철호 Tel. (82)2-793-7740, Fax. (82)2-793-7740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김치 특공대

저녁식사 자리에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김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김치특공대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하고 얘기한다. “아마 이번 토요일쯤 할게요.” 출동소식에 남편은 약간 귀찮은 듯 “아니, 벌써 다 먹었나?” 하고 아이들은 “옛셀!”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우리 아이들은 김치 없는 밥상을 생각 못한다. 모든 음식을 편식 없이 맛있게 잘 먹고, 집에서

주로 한식을 해서 당연하기도 하지만, 8살 둘째 아들은 김치 국물을 김치주스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떠먹을 정도로 김치를 정말 좋아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학교수업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아침식사는 간단하게, 점심은 학교런치로, 저녁 한 끼 정도 한식을 먹었던 아이들의 한식비중이 높아졌다. 자연스럽게 김치도 더 빨리 먹고 더 많이 자주 담그게 되었다.

이제 김치는 직접 만들어 먹지 않아도 미국 대형마켓에서 Kimchi로 표기되어 많이 팔고 있어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다. 내가 사는 노던버지니아는 한인인구가 높아 대형 한인마트나 한국식당도 많다. 손쉽게 맛있고, 다양한 종류의 김치와 한국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배추절임 정도나 양념분배에 따라 담글 때마다 맛이 변하는 집 김치에 비해 시판김치는 맛도 일정하고, 감칠맛이 커서 훨씬 맛이 좋다. 솔직히 가격도 다양한 채소와 갖은 양념 비용을 생각하면 사 먹는 편이 더 쌀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집에 ‘김치특공대’라는 특수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나와 우리가족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엄마,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 그리고 그분들께 이어받은 사랑과 믿음, 한국문화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나의 마음이다.

김치교인 우리 집안은 증조할머니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시고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 나의 아이들로 5대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장면이 있다. 방에서 두 손을 꼭게 모으고 전심으로 기도하시던 모습과 김치를 함께 만들고 맛보는 장면이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가끔 오시던 할머니께선 오자마자 김치부터 만드셨다. 거실에 신문지를 넓게 깔고 마루가득 푸릇푸릇 싱싱한 쪽파를 다듬고 계셨다. 배추김치는 항상 있으니, 할머니께서는 손품이 많이 드는 파김치를 꼭 담그셨다. 하고 후 활동하는 것은 나와 우리가족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엄마,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 그리고 그분들께 이어받은 사랑과 믿음, 한국문화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나의 마음이다.

파김치가 먹음직스럽게 양념에 잘 버무러지면 “간 좀 볼래?”

하시며 주는 할머니 파김치는 씹싸하며 짭조름하고 또 신기하게 달달한 맛도 났다. 맛있으며 연신 파김치를 집어먹는 내들로 5대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장면이 있다. 방에서 두 손을 꼭게 모으고 전심으로 기도하시던 모습과 김치를 함께 만들고 맛보는 장면이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가끔 오시던 할머니께선 오자마자 김치부터 만드셨다. 거실에 신문지를 넓게 깔고 마루가득 푸릇푸릇 싱싱한 쪽파를 다듬고 계셨다. 배추김치는 항상 있으니, 할머니께서는 손품이 많이 드는 파김치를 꼭 담그셨다. 하고 후 활동하는 것은 나와 우리가족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엄마,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 그리고 그분들께 이어받은 사랑과 믿음, 한국문화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나의 마음이다.

파김치가 먹음직스럽게 양념에 잘 버무러지면 “간 좀 볼래?”

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구글에 Kimchi로 검색하면 Origin of China로 되어있어, 미국 한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구글 사이트에 피드백을 보냈고 구글에 많은 한국직원 분들도 즉각 회사에 함께 얘기하여, 반나절 만에 연관검색어에 China를 Korea로 수정했다. 안타깝게 점 세상은 당연했던 것들을 당연하다 얘기하지 못하고 내 것도 남의 것이 되는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해져간다.

김치가 여러 색깔의 많은 재료, 각각의 맛이 함께 섞여져 더 맛있고, 깊게, 건강한 맛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여러 인종, 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 살며 더욱 깊고 건강하게 커가길 소망한다. 특별히 크리스천으로 김치처럼 세상에 잘 버무러지지만 매운 믿음의 맛도 잃지 않기를 기도한다. “김치특공대 오늘도 훌륭- 성공!!”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성적채성 무너뜨릴 ‘평등법’ 입법 막아야”



빌리그레함전도협회 대표 프랭클린 그레이엄(사진) 목사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미국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평등법’(Equality Act)을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 규정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을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여성 스포츠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화장실 기숙사 여성숙터 등에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줄 것”이라며 “철실한 기도와 함께 상원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해당 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날 그레이엄 목사는 빌리그레함전도협회가 운영 중인 인터넷사이트 ‘디시전매거진’에도 평등법이 도입되면 발생할 피해를 자세히 적었다. 그는 “평등법은 공공편의시설로 지정된 학교, 교회, 의료기관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부의 신념과 명령을 수용하도록 강요한다”면서 “교회와 기독교단체 등은 신앙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는, 기독교 신념에 적대적인 사람의 고용을 강요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진에게 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있어 의료 전문가의 양심을 박탈하며, 정부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대학에 ‘대학인가 거부’ 등으로 위협을 가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그저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할 뿐이며, 평등법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에 나서고, 교회는 평등법의 중요성을 인식해 우리가 오랫동안 축복 속에 이어온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개입과 자비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평등법은 지난달 25일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평등법은 2019년에도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됐다.

BCS,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입양 허용



미국 최대 개신교 입양단체가 동성애자 부부에게도 입양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와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에 본부를 둔 복음주의 단체 베다니크리스천서비스(BCS)는 지난 1일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기타 동성애) 부부를 상대로 한 입양을 즉각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크리스 풀루스키 BCS 회장은 이날 1500여명의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유형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을 담아 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BCS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동성애자 부부의 입양 신청도 수용해야 한다는 각 지방 정부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BCS는 2007년 “하나님이 설계한 가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약이자 평생 결혼”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동성애자 부부의 입양 의뢰가 들어오면

비공식적으로 다른 기관에 인계했다. 하지만 2018년 필라델피아에 사는 레즈비언 커플이 문제를 제기하자 필라델피아시는 BCS와 모든 계약을 중단했다. 2019년엔 미시간주도 동성애자 부부의 입양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관에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두 곳을 포함해 12개주 BCS 지부가 지난해까지 동성애자 부부의 입양을 허용하기로 했고, 이번 전면 개방까지 이어졌다.

BCS사회는 지난 1월 “하나님이 설계한 가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약이자 평생 결혼”이라고 명시한 규정을 삭제한 ‘포용적 결의안’을 투표를 거쳐 승인했다.

두 아들을 입양해 기르는 러셀 무어 미 남침례교 윤리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 모두가 필요하다”는 점을 포함해 기독교적 입양과 양육 서비스의 필요성은 크다”면서 “이번 조치는 신앙에 기반한 기관들이 기독교 핵심 신념에 따라 굴복하지 않고, 위기에 빠진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해 왔던 그동안의 노력에 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음주의권 아동보호기관들이 신앙을 지키면서도 가족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자, 래리 크랩 별세



‘결혼 건축가’ ‘에텐 남녀’로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 상담심리학자인 래리 크랩 박사(사진)가 지난달 28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크랩 박사는 1970년 일리노이대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애틀랜타에 상담센터에서 소장으로서 활동했으나 일반 심리학에 한계를 느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종교개혁가 칼뱅의 사상을 담은 기독교 상담학을 정립했다.

기독교 상담학은 크랩 박사가 최초의 아니다. 70년대에 이미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제이 애덤스가 성경의 원리를 상담학에 적용하고 있었다. 크랩 박사는 여기에 대중적 변증가였던 프랜시스 쉐퍼와 영국의 영문학자이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를 통해 기독교 상담의 기초를 닦았으며, 삼위일체 신학과 로마서 7장 6절인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의 ‘성령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 상담을 대중적으로 체계화했다.

뉴웨이미니스트리(New Way Ministries)를 설립해 ‘새로운 기독교 상담학’을 추구했으며 공동체 중심적 상담,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과 영적 성장을 복돋우는 상담으로 기독교 상담의 방향을 재설정했다. 콜로라도기독교대(CCU) 기독교상담학 교수, 전미기독교상담협회에서 영성 부문 책임자로 활동하며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을 확산시켰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교와 기독교대 상담학 과정의 교과서로 사용되는 ‘효과적인 성경적 상담’(Effective Biblical Counseling)은 그의 대표 저서다. 국내에도 ‘래리 크랩의 파파기도’ ‘아담의 침묵’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하나님의 러브레터’ ‘행복’ ‘결혼 건축가’ ‘인간 이해와 상담’ ‘영적 가면을 벗어라’ ‘적려를 통한 영적 성장’ ‘에텐 남녀’ 등이 번역됐다.

전세계 취약아동을 버랑 끝...



코로나19로 전 세계 취약 가정 아동들의 삶이 더 피폐하고 가난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보다 결식 아동노동 조흔 등에 노출된 아동들이 증가했다.

국제개발기구 한국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지난 4일 월드비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와 아동·청소년 불평등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국내외 취약가정 아동에게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돌아보고 아동·청소년의 불평등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한 자리였다.

영국 퀸즈대 벨파스트 아동권리센터 공동책임자 브루나 번 교수는 “코로나19와 아동 불평등”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번 교수는 지난 8개월간 137개국 8-17세 아동 2만625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한 결과를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답한 아동은 41%였다. 아이들도 이전보다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졌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볼리비아의 9세 여아는 “부모가 직장을 잃어 음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기존 취약 아동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이후 전체 아동 중 일반아동은 20%가 식량 부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주아동과 난민신청 아동은 일반아동의 두 배 수준인 각각 38%, 40%가 식량부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국제월드비전 분쟁취약국의 예술리 라벳 정책 선임고문은 “코로나19와 해외 취약아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라벳 선임고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바이라스 차단을 위해 194개국의 학교가 봉쇄 및 휴교를 결정했다”며 “학생 16억명이 학교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휴교로 아이들은 배움과 발달의 기회를 잃었을 뿐 아니라 낮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을 공간을 박탈당했다. 인도의 한 13세 여아는 “저는 다시 학교가 열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 일하러 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라벳 선임고문은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휴교 규모가 절정에 이른 시기 3억7000만여명의 아동이 결식을 경험했다”며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조흔 직업 아동노동 등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폭력 착취 학대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월드비전이 지난해 5-7월 아시아 9개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8500만여 가구가 식량 부족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억1000만여명의 아동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800만여명의 아동이 강제노동 구걸 등의 폭력에 노출됐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은 가정 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흔에 내몰렸다.

라벳 선임고문은 “모든 아동에게 기초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아동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성폭력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격차 해소를 포함해 모든 아동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분쟁과 재난 상황 등에 처한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명환 회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전세계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월드비전은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 아동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인 10명 중 9명 “중국은 적”



미국인 10명 중 9명은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팬데믹까지 ‘중

국 책임론’이 제기되며 부정적인 대(對)중국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미국 성인 남녀 2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4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9%는 중국을 ‘동반자(partner)’라기보다는 ‘경쟁자’ 또는 ‘적’으로 여긴다고 답했다.

중국에 대해 ‘매우 냉정한(very cold)’ 또는 ‘냉정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응답자도 67%가 나왔다. 3년 전인 2018년 조사 때(46%)보다 2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중국에 ‘온화한(warm)’ 감정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11%에 불과했다.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 많아졌다. 48%의 응답자는 중국의 권력과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에는 32%의 응답자가 이같이 답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민주당보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았다. 중국과 협력하기보다는 강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72%,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37%가 나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제 문제를 대처하는 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15%, 그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가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것으로 확신한다는 응답은 53%였다. 이는 테러리즘이나 기후변화, 무역문제 등 다른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긍정 응답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의혹과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 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0%가 중국 내 인권 증진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퓨리서치는 “미국인들은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경제적 대가를 치러주고 하더라도 인권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빨리 달라” “맞기 싫다” ...백신전쟁 두얼굴



세계 125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가운데 미국정부의 방역대응에 항의하는 ‘두 얼굴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백신이 부족하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와 지나친 방역조치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불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6일 블룸버그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리오 압도 파라과이 대통령은 전날 수도 아순시온에서 발생한 시위로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밝혔다. 시민 수백명은 공공병원 치료약물과 코로나19 백신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진압 경찰과 충돌해 최소 1명이 숨졌다.

NYT는 지난해 7월 파라과이 정부가 경제활동을 재개한 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심해지면서 보건체계가 붕괴 직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 환자 가족들이 마취제 등 약물을 암시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국립병원에는 약물은 도난당한다는 종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공급된 양은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4000회분에 불과하다. 곧 칠레가 기증한 중국산 시노백 백신 2만회분이 도착할 예정이지만, 파라과이 인구 700만명에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를 향한 공분이 확산되자 상원은 훌리오 마술레니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는 전날 사임했다. 압도 대통령도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 개편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16. 강영소(1886-1934)

'창해 소년'이라 불렀던 강영소(康永翬)는 1886년 2월 18일에 평안남도 증산면 취흥리에서 강명화의 6남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증산군 공립소학교에서 공부하다가 1903년에 한성사범학교에 입학하여 1904년까지 공부했다. 어머니 송 씨와 두 동생은 한국에 남겨두고 38세의 아버지 강명화와 25세의 형 강영대 부부와 7살 된 동생 강영각과 함께 19세의 그와 그의 부인이 진남포에서 청룡관 선박을 타고 부산을 거쳐 일본에서 차이나 선박을 타고 1905년 5월 29일에 노동 이민자로 하와이에 이주하였다.

로 이동했다. 이듬해 신한민보 총무로 초빙되어 상항으로 이동했는데 5월 28일에 상항 한인장로교회에서 설교했고, 이후 이



강영소

가는 곳마다 헌신... 스타튼한인감리교회 전도인, 시카고한인교회 설립발기인
호놀룰루 공진회 조직, 안창호가 강영소 셋집에서 흥사단 조직... 애국활동

에와한인감리교회

에와 농장에서 노동하던 강영소가 1905년에 윤병구 등과 함께 하와이 한인사회의 친목과 상호호조를 목적으로 에와친목회를 결성한 이듬해인 1906년에 김영식 목사가 담임하던 에와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다. 그해 학습을 받은 그는 이듬해에 15명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 해 본 교회의 학습교인이 71명이었고, 세례교인은 70명이었다.

위 목사가 목회하던 본 교회에 출석했다. 그달에 그는 본 교회 청년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데 기타 임원으로는 전도국장 장나득, 학문국장 최정익, 인제국장 박영식, 교제국장 양주은, 통신국장 강 번 그리고 회계국장 박윤하였다.

1911년 11월 호의 '대도'에 따르면 강영소는 본 교회 유사 조원들과 이순기가 출타할 때에 황사용과 함께 유사



에와한인감리교회

강영소는 1906년에 민찬호 등과 함께 하와이 한인 이주민의 자치계몽을 위하여 호놀룰루에서 공진회를 조직했다. 고종황제가 일제에 의해 강제퇴위를 당하던 때 공진회는 대한제국의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와이에 있던 23개 한인단체와 통합하여 한인합성협회를 결성했고, 한인합성협회가 장인환과 전명운에 의한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 저격 의거를 계기로 1909년에 미국 상항의 공립학교와 통합하여 국민회가 될 때 강영소는 합성협회 대표 중 한 사람으로 활약했다. 국민회는 1910년 대동보국회와 통합하여 대한인국민회로 출범했다.

상항한인장로교회

뇌병으로 인해 하와이 지방총회와 신한국보의 직책을 내려놓고 강영소는 공부하기 위하여 1910년에 상항을 거쳐 가족이 있던 앨런드 인근 나섬

로 선임되었다. 그런데 그가 하와이를 떠날 무렵에 자유교회 교인이었으므로 유사 임무를 사면 청원하였으나 '대도'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하여 본 후에 결정하겠으나 별도로 큰 관계가 없을 것은 우리 한인의 단합심으로 밀접한 내정을 보아도 피차를 가릴 것이 아닌 줄로 생각하노라"고 보도했다.

스타튼한인감리교회 전도인

1911년 12월 5일에 강영소는 상항한인감리교회 청년회 전도국장이 되

었는데 회장은 황사용, 인제국장은 양주은, 학문국장은 최정익, 교제국장

장은 차의석, 통신국장은 김대연 그리고 회계국장은 장나득이었다. 이듬해 1월 7일의 본 교회 청년회 통상회는 "우리 동포의 도덕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금년에 스타튼 근방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기를 결정"하였다. 그해 1월에 소노라 스트리트(Sonora Street)에 대한인국민회 지방회와 경찰소가 있을 만큼의 한인사회였지만 스타튼에는 교회가 없었다.

1912년 2월 12일 자의 신한민보의 글 '스타튼 농작 호황'에 따르면 스타튼 인근에 자농과 병작이 9처나 되었고, 소유 토지가 총 2,127에이커에 달했으며 지난해를 감자 농사는 흥왕했다. 이들 중에는 블랙루파에서 300에이커에 감자 농사하는 이재수와 박영순 외 4명, 280에이커에 농사하는 박승열과 장춘경, 자농하는 박장순, 스타튼 웨스턴아일랜드 국민회 근처의 전체에서 농작하는 김국민, 감자 농사하는 박창순, 슈웨타일랜드에서 500에이커의 감자 농사를 하는 박상섭과 함영호 등 12인, 아일랜드에서 30여 동포가 노동하는 아스파라거스 농장을 주장하는 김찬일, 스타튼 근경에

각처 농장에서 배당하여 공동집이 되었다.

"전도의 자미를 많이 보았"고, 이에 장차 매 주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강영소의 스타튼 한인 전도를 위하여 그해 1월에 상항 인근 백인교회인 오클랜드 감리교회 청년회에서 매삭 2달러 50센트를 보조하기로 하였고, 본 교회 부인회에서 6달러 40센트를 후원하였다.

상항한인감리교회 청년회가 전도국장으로 황사용을 선임했던 1912년 3월 3일까지 강영소가 스타튼 전도를 하였으므로 스타튼 전도를 시작한 1912년 1월 21일부터 셈하면 그의 전도는 1개월 2주간이었다. 그런데 그해 6월에 상항한인감리교회 이대위 목사와 협의하여 스타튼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물을 설립하고, 예배당에 부족한 건물에 강영소의 부인이 거주하여 예배당을 유지하는 데 조력하였다고 하니 강영소의 사역은 계속된 셈이다.



상항한인감리교회(1912년)

한 후 넷째 동생 강영상과 함께 시카고로 이주하여 서양식당 사업에 몰두하여 '강 브라더스 카페테리아 회사'를 창립하여 크게 성공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상해임시정부, 국민회, 흥사단에 후원했다.

염광섭과 황창하 등 학생들이 시카고 남쪽의 김일선의 '레이크 파크 에비뉴'의 셋집에서 1922년 3월부터 기도회 모임을 시작했고, 그해 9월 강영소와 김 경 등 일부 한인 사업가들이 북쪽 릭턴 에비뉴의 강영소의 집에서 기도회를 시작했다. 두 해 후 8월 24일에 학생 그룹과 사업가 그룹이 공동으로 삼일운동 33인 중 한 분이었던 김창준 목사를 중심으로 시카고한인교회가 설립될 때 강영소는 김 경, 김원용, 박장순, 염광섭, 조희림, 차의석 등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그해 이사부원으로 활동했고, 그의 부인은



스타튼한인감리교회



강영소의 묘비

주일학교를 담당했다. 1927년에 강영소 부부를 위해 만찬을 한 후 게재한 사진을 찍었다. 강영소는 우측 첫 번째 서 있고, 그의 부인은 우측 첫 번째 앉은 사람이다. 매년 이사부원이었던 그는 1931년에는 이사부장이 되었다.

갈홍기 목사가 부임하던 1931년의 8월에 강영소는 고혈압으로 실신하면서 6개월간 입원했고, 이후 활동이 제한되었다. 한승곤 목사가 시무하던 1934년의 8월 26일에 강영소는 병이 재발하여 향년 48세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주례하며 설교를 마친 한승곤 목사는 "우리를 두고 아주 가시는 '창해 소년'의 몸은 화초 동산 가운데 세상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린 듯이 누워있구나"라고 한 후 마지막 그의 얼굴을 차례로 본 다음 발인했고, 그는 어빙 파크 묘지에 안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독립 운동을 해하여 2011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매부 양우조는 1963년에 독립장을, 동생 강영각은 1997년 건국훈장을, 2012년에 아버지 강명화와 동생 강영문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2013년에 형 강영대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그해에 동생 강영상은 대통령 표창을 받아 강영소의 가족은 독립운동의 명문 가문이라고 불린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4>감사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교회: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9:30(월-금), 오전 11:3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남가주든든한교회</h4>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Anaheim, CA 90026</p>	<h4>남가주사랑의교회</h4>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성예배: 오후 1:20 찬양예배: 오후 7:0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한미교회):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빛과 소금의 교회</h4>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 영양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일: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hw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891 824 W. Valencia Blvd., L.A., CA 90015</p>	<h4>열매교회</h4>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1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4>엘피스가족원</h4>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교회 협동목사 성서강사: (월-금) 오전 9:45(본당) 사제: 1. 영성사제 2. 가정사제 3. 영성사제 4. 영성사제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원: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세운교회</h4>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4>좋은마을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역)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W), www.cornerstonetn.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토렌스조은교회</h4>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토 비 예 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 요 예 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핼(PIM)선교회, 교회</h4> <p>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예배: 오전 11:00 한미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p>	<h4>하늘사랑교회</h4>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영성'이 임하여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4)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6)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제 2권의 윤리 구성과 내용
제 2권은 라무스주주의에 입각한 에임스의 신학체계의 나머지 절반 곧 신앙에 따르는 순종 또는 순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 순종하게 하는 능력
에임스는 “순종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실천이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마음의 준비”로 보면 하나님께 “자녀”로서 순종하지만, 의무로 보면 “종”으로서 순종한다(2권 1.1)는 것이다.
에임스에게 “복종하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겸손한 경외함으로”(2권 1.11) 가까이

한다(2권 1.16). 또한 순종은 미덕과 선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종교(하나님에 대한 사랑) 뿐만 아니라 정의와 자선(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된다.

2) 종교와 정의로서의 십계명 이해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의 나머지 부분은 십계명을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마22:37-40), 그는 율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종교”와 인간 지향적인 “정의”(2권 4.1-4)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는 종교 곧 경건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 신학적인 덕에 비추어 설명한다(2권 5-7). 이 세 가지 중

고 사랑하라고 명령한다(2권 17-22).

이웃의 번성을 기뻐하라는 열 번째 계명은 첫째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요약하고 있다고 한다(2권 22, 19).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의도는 십계명에 규정된 것처럼,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행실로 묘사된다(2권1-22장). 이와 같이 그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신학의 정수”에서 전개하고 있다.

3) 기독교 윤리의 종합
에임스에게는 기독교 윤리 주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그 주제는 실천적인 기독교의 삶 자체에 대한 강조

쓴 그의 책 “기독교 예식서(Christian Directory)”를 내면서 “피킨스가 개혁과 결의론을 발전시키는데 가지 있는 역할을 했다면, 에임스의 작품은 비록 간단하기는 하지만 더 우수하며, 에임스가 누구보다 더 탁월하다”고 칭찬했다.

4) 기독교로 충만한 에임스의 작품
그의 작품은 실천적인 기독교로 충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구속 받은 자들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신앙의 도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제시한다. 그는 중대한 언약적인 순종이 어떻게 구속 받은 자들의 삶 속에 들어 있는지 질문한 후에,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

율법(십계명)을 하나님중심의 “종교”와 인간지향적인 “정의”로 나눠 결정적 주제인 기독교윤리의 주석 “양심론”은 실천적 기독교로 충만

순종하는 것(2권 1.1.4)을 의미한다. 또한 복종하는 순종은 성실함과 열정을 포함한다(2권 1.34).

그는 순종을 구원하는 믿음과 연결시켰고, 그의 윤리는 그의 교리와 연결되었다. 그는 “삶의 원천이시며,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서, 또한 순종을 자극하는 하나님 의 약속과 경고를 받아들임으로서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고 한다(2권 1.15).

믿음의 순종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 즉 선에 대한 내적인 거룩한 습관과 성향의 덕(2권 2)과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이런 덕에 의해 생겨나는 외적인 선행(2권 3)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성결하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말

교적인 덕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작용한다(2권 8-12).

여기서 에임스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과 그 신학적 덕목이 어떻게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기초가 되는지, 그리고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과 그 자비로운 덕목이 어떻게 사람 사이의 행실의 본보기를 구성하는지 설명한다.

십계명의 둘째 돌판에 대해 그는 “우리의 이웃의 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의’로 설명한다. 이 계명들은 이웃의 명예와 생명과 성적인 순결과 법적인 소유와 진리에 대한 믿음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웃의 선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

점을 알고 있어야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활력적이고 실천적인 경건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인 삶에 있어서 난해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분명하고 정당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임스는 “양심론”을 통하여 2권의 주제를 더욱 깊이 설명하고 있으며, “신학의 정수”의 후반부인 2권의 윤리에 대한 주석적인 기능으로서 “양심론”을 썼다. 에임스는 보다 발전된 개혁과 사상 체계와의 간격을 메운 도덕신학 작품을 여러 권의 책으로 묶어서 출판했다.

리처드 박스터(Richard Baxter)가 에임스의 결의론(決疑論)에 조화를 이루어

한 사랑에서 증명된다고 기술한다. 이것이 “신학의 정수” 1권에서 설명된 에임스의 공식적인 신앙의 논리적인 귀결이며, 2권에서 다루고 있는 그의 도덕신학(순종)의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에임스의 작품은 그가 신앙의 길을 탐구함에 있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언약적인 사랑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복종하는 언약의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예증하고 있다.

lpyn@apu.edu

성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성품훈계법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SBS-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훈계 전문가의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아이들 가운데 엄마 아빠에게 욕을 하고 특하면 악을 쓰던 은우(가명)라는 아이가 기억에 남습니다. 은우는 서슴없이 막말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장난감을 치우면 “빨리 줘, 나쁜 놈아! 빨리!”라고 소리쳤지요. 야단을 치면 “죽을래? 인마? 엄마 죽여 버릴 거야!”하고 악을 썼습니다.

은우의 엄마는 저를 만나자마자 “피곤해요. 저는 아이만 보면 너무 피곤해요”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상태였고, 회초리를 세게 때려서라도 모든 문제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그런 행동이 결국 은우를 공포로 몰아넣어 반항심만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은우의 폭력으로 반항하는 거친 모습 이면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떠는 정서가 뒤섞여서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대화’로 아이를 훈계하지 못하고 지나친 회초리로 아이를 공포 속에서 양육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사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훈계합니다. 그러나 어떤 훈계는 자녀에게 사랑의 빛으로 남지 않고 아픔을 주는 상처로 남아 부모-자녀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훈계들이 쌓이고 쌓여 자녀의 성품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받은 잘못된 훈계가 평생의 상처가 되어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훈계란 무엇일까요? 성품훈계란 ‘자녀가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도록 부모와 교사가 좋은 성품으로 가르치고 수정하고 훈련시키는 것’(이영숙, 2005)입니다.

자녀가 좋은 성품을 키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정하고 훈련하는 부모로서의 노력이 곧 좋은 훈계인 셈이지요. 훈계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원한이나 복수심, 분풀이로 부모의 화를 분출하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13:1 후반절)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모의 훈계도 오직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성품훈계는 자녀를 잘못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줌으로써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성공적인 자녀 훈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한꺼번에 몇 계단을 오를 수 없듯 자녀 훈계도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성품훈계의 3단계를 소개합니다.

1단계는 가르침의 단계로, 자녀에게 훈계에 대한 지침과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2단계는 훈련의 단계로, 자녀 스스로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교정의 단계로, 자녀가 부모의 훈련을 잘 따르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단계입니다.

성품훈계는 단순히 ‘잘 가르쳐 행동을 바로잡는 방법’이 아니라, 자녀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랑의 관계 맺기’ 훈련입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유튜브러스 성품훈계학교가 ZOOM으로 진행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시는 성령님(Ubiquitous)의 역사하심으로 US 목회자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좋은 성품 성장의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유튜브러스 성품훈계학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goodtreeusa@gmail.com으로 문의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어 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주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기도회: 오후 08:45 금요일기도회: 오전 05:30 성령훈련: 오전 10:00 화,토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리빙스턴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청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안교목회(특별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어린양 개혁 교회 담임목사: 유승래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 3부 오후 4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전 7:3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브라질 서물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천 신학교 교수 2. 김어루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안나한인교회)

누가 세례 요한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라며 가르쳤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와우, 그는 매우 비싸고 좋은 옷을 입었군요. 그는 부자였는가 봐요?"라고 반문했다. 다시 그 선생님은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며 살았답니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와우, 그는 몸에 좋은 자연식품만 먹었군요. 그는 건강식품 애호가인가 봅니다"라고 말했다. 약대 털옷은 죽은 약대로부터 얻은 전혀 가공되지 않은 뉘새나고 살육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친 가죽을 말한

다. 메뚜기와 야생 꿀은 사람이 재배하거나 가공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유지를 위해서 자연 속에서 겨우 채취한 것을 말한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기인의 모습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에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제사장은 유대사회의 귀족층인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스가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만약 집안의 전통을 따르는 일반적인 길을 걸었다면 그는 집안의 혈통대로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을 것이고, 심지어 대제사장도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편하

고 명예가 약속된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삶도 버리고 광야에서 홀로 살았다. 그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꿈꾸는 출세, 명예, 편안함 등 그 모든 것을 초월하였다. 게다가 그는 그 당시 특권층들을 향해서 조금도 다들지 않은 돌직구들을 맹렬히 날리며 무섭게 회개를 촉구하였다. 그는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 왕의 부도덕을 지적하다가 결국 처형당하여 죽고 말았다. 왜 세례 요한은 그런 기인의 모습으로 살았고 급진적인 언행들을 쏟아내었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

명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것이 없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길과 틀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했다. 그 시대의 기득권층이 탄탄하게 닦고 쌓아올렸던 만연된 죄악, 부도덕, 율법주의 그리고 유대주의의 유전과 전통들을 철저히 깨어 부셔야 했다. 탐욕과 위선으로 다진 특권층의 굳건한 틀을 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충격을 가해야 할까? 정제되고 우회적인 말들로서 탐욕과 위선이 보편화된 그 시대를 향하여 작은 흠집조차도 하나 내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최고치 레벨의 단어로서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이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고, 가족의 생계나 안전이 염려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솔로가 되어서 조금도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도모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권력층의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광야에 가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외롭지 않

았을까? 그도 감각과 신경을 가진 사람인데 닥쳐올 권력자들의 폭력이 두렵지 않았을까? 그는 조금도 그런 표시를 내지 않는다. 전혀 그런 감정을 읽을 수 없다. 자신의 삶과 사역을 힘들어 하지도 않는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의 별명은 엘리야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오리지널 엘리야는 훨씬 인간적이지 않았던가? 엘리야는 무리한 사역으로 인한 탈진과 몰려오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서 죽고 싶다고 한탄했다. 우리는 엘리야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기도 하였다. 엘리야의 탄식을 통해서 나의 한숨이 정당화될 수 있었고, 엘리야의 절망을 통해서 나의 절망감이 위축될 수 있었다. 그레 엘리야도 그랬는데 하물며 나는... 그래서 한없이 무너지고 깨어진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런 티를 내지 않는다. 그도 사람일 것인데... 오늘날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한다면 누가 그의 설교 앞에 설 수 있을까? 그의 목회사역의 열매는 어떤가 상상해본다. 그

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생각해 본다. 나는 세례 요한처럼 살거나 목회할 자신은 없다. 주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나에게 주지 않음을 감사드리려 본다. 주님께서 나 홀로 광야에서 거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아내와 자녀를 주시고, 동역자와 친구들을 주시고, 사역의 대가도 주시고, 따뜻한 집을 주시고, 취미생활을 하며 휴가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힘내어서 더욱 열심히 사역하라고 나 자신에게 채찍질 해본다. 하지만, 그것이 나 스스로를 위한 합리화가 아니기를 경계해본다. 나는 오늘도 나의 말과 메시지를 순화시키고 정제시키기를 연습한다. 그래서 나의 입술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치유하고 용기를 주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묵상하면서 아무 권력욕이나 명예욕이나 탐욕 없이 살다가 세례 요한의 따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해달라고 기도드리려 본다. dik0184yahoo.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질염

질염vaginitis는 여성에게 매우 흔한 질환이다. 질염의 종류는 다양하고 특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환자마다 호소하는 증상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여성의 질 부위에 심한 가려움증으로 시작해서 심한 냄새가 나거나 분비물이 나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질염은 종류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흔한 질염은 곰팡이에 의해서 유발되는 칸디다

candida성 질염인데 전체 질염의 약 4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전에 처방 없이 약을 사서 치료하기 때문이다. 칸디다성 질염은 주로 월경기 여성에서 발생하고 여성호르몬을 복용하지 않는 여성이나 월경 전 여성에서는 드물다. 칸디다성 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가려움증이다. 또 소변볼 때 통증을 느끼거나 성

관계 시 통증이 있고, 질 부위가 발갛게 부어올 수도 있다. 분비물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희고 진한 분비물이 나온다. 칸디다는 피부나 입, 질에 있는 곰팡이의 일종인데 약물이나 외상,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면역기능이 약해지면 증식해서 증상을 나타낸다. 칸디다성 질염이 자주 걸릴 수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신체 내 항생제의 사용으로 인체 내의 유리한 세균을 죽일 수도 있고 이 때문에 곰팡이 균의 지나친 증식을 가져와서

칸디다성 질염을 유발할 수 있다.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피임 도구를 사용할 때도 질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당뇨병이나 임신과 같이 면역기능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질염에 쉽게 걸릴 수 있다. 칸디다성 질염은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를 자주

하더라도 그 빈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세균성 질염은 젊은 여성에서 매우 흔한데 불편하고 심지어 심각한 성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질염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균성 질염도 칸디다성 질염과 마찬가지로 질 내의 세균 숫자와 종류의 변화에 따라서 발병하는데 정상적으로 질에 존재하는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i)라는 균의 숫자가 감소하고 세균이 과다하게 증식하면서 질염에 걸리게

된다. 세균성 질염의 약 50-75%에서는 증상이 없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물고기'가 섞여 듯한 악취'와 함께 질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 성교 시에 심한 냄새가 난다. 이는 알칼리성인 정액과 섞였을 때 활기성인 지방산과 아민이 유리되면서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 성교할 때나 소변볼 때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질 부위가 가렵고 붉게 변하며 붓는다. 세균성 질염은 그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임신부에서 발

심한 경우나 자궁수술 등을 앞둔 경우는 반드시 약물치료를 하도록 한다. 남성 배우자에 대한 치료는 할 필요가 없다. 세균성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 내 세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질 내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균이 자라고 있다고 보면 된다. 또 성관계를 여러 명과 가지는 것은 세균성 질염뿐 아니라 성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균성 질염을 치료할 때는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약을 끝까지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여성에서 흔한 질염을 구분하기 쉽지는 않지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칸디다성 질염은 일반적으로 진한 분비물이 나오면서 냄새가 없지만 세균성 질염은 악취가 나고 분비물이 칸디다성 질염에 비해서 는 묽다. ▲문의:213-383-9388

심한 가려움증으로 시작

된다. 배란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질염인 세균성 질염에 걸리는 원인은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갖거나 질 세척을 자주 할 때 위험이 높으며, 흡연자에서 흔하다. 하지만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세균성 질염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병으로 분류되지 않

는. 배하는 질염은 조산을 유발할 수 있고, 질염을 치료하지 않고 자궁제거술이나 유산할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세균성 질염을 앓게 되면 질 내의 상피세포 파괴로 에이즈나 헤르페스, 임질과 같은 성병 등의 전염을 쉽게 한다. 따라서 세균성 질염으로 인한 증상이

새 노회장에 박정식 목사 선출

KAPC 뉴욕서노회 제88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 제 88회 정기노회가 3월 9일 오전 9시 여호수아장로교회(담임 이만수 목사)에서 대면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박정식 목사(은혜연합교회) △부노회장: 오영삼 목사(뉴욕세빛교회) △서기:

임일송 목사(뉴욕백민교회) △부서기: 성호영 목사(하나님이 기뻐하시느교회) △회록서기: 남일원 목사(든든교회) △부회록서기: 승철 목사(늘푸른한마음교회) △회계: 한병현 장로(백민교회) △부회계: 윤형선 장로(주님의교회). 1부 예배는 박종윤 목사 인도로 기도 지면철 목사, 설교

박정식 목사, 성찬예식 집례 박종욱 목사, 헌금기도 양위승 목사, 축도 이만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정식 목사는 신명기 6장 4-9절을 본문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회의는 회원 호명, 개회 선언, 절차보고, 임원공천, 임원 개선, 광고, 출석위원 선정, 서기 사무보고, 각부 보고(현의 입사부, 규칙 당회록 검사 고시 신학부, 전도 선교 구제 은금 재정부, (10면으로 계속)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회의는 오로지 우편 투표용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는 데만 국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별총회가 다음 12개의 안건에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화해와 분리를 통한 은혜의 의정서'를 비롯한 교단 분할에 관한 어떤 안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동성애 논란으로 촉발된 교단 분리안은 지금부터 1년6개월 후나 상정될 예정이다. 길고 지루한 절차와 과정을 밟게 될 교단 분리가 향후 이 기간 동안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UMC 총회 2022년으로 재차 연기

5월 8일 특별총회서 12개 안전만 온라인투표로

미연합감리교(UMC) 총회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때문에 이미 연기된 교단의 최고 입법 기관인 총회를 한 해 더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에 연기된 총회의 새로운 일정은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6 일이며, 장소는 미니애폴리스. 총회위원회의 발표와 동시에 총감회도 5월 8일 하루 동안의 특별총회를 소집했다. 이 특별총회는 총회가 열릴 때까지 교단의 운영을 원활하게 도울 12개의 안전만을 다룰 예정이다. 화상으로 열릴 특별 총회는 정족수를 채워 일부 규

정을 중지시키고, 서면으로 투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규정들을 일시 중단시키기 위한 투표만 온라인 회의에서 실시될 뿐, 총회 대의원들은 온라인 회의가 끝난 후 12개 입법안에 대한 서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추가시간을 받게 된다. 이 투표용지는 우편으로 발송되고, 결과는 7월 13일에 발표된다. 신시아 피에로 하비 총감회 회장은 성명에서, "우편 투표용지를 사용하면 교단 전체 대의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30, Korea & Southeast Asia \$240, Europe \$240, N. America \$240, Africa \$240.

Subscription form fields including name, address, phone, and payment details.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센트럴교회 2021 선교대회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 2021 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다. 저녁 8시-10시, 새벽 6시-7시30분,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실시간 현장예배와 온라인 병행으로 열린다. 13일(토) 오후 5시에는 미션콘서트를 개최하며 찬양, 간증, 교제, 질의응답이 있다. 강사는 정민영 선교컨설턴트(전 인도네시아, 국제위클리프 구대표), 김재우 선교사(Proskune Ministries), K 선교사(T국).

▲문의: (718)352-6753

뉴욕/뉴저지 연합실버선교학교 개강

뉴욕/뉴저지 연합실버선교학교 2021년 봄학기가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줌으로 열린다. 강사는 김재열 목사, 양준길 목사, 임현수 목사, 김병선 선교사. 이재한 선교사, 황영송 목사, 양민석 목사, 김성기 목사 등이다. 등록비는 100달러이며 졸업생들에게는 수료증과 선교지 파송을 받는다. 수료생들과 청강이 가능하다.

▲문의: 뉴욕/김경열 목사(917)963-9357, 뉴저지/김중국 목사(201)694-2855

KCC 코비드 백신 세미나

뉴저지 KCC 한인동포회관(남경문 부관장)은 오는 3월 27일(토) 오전 11-12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관련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강사 장항준 박사는 현재 퀸즈 프레스비테리언병원과 버겐카운티 잉글우드병원에서 내과의사로 재직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와 알버트지 양로원 후원으로 모더나 및 화이자 백신의 효능,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전망 및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201)541-1200, ext.111, 117 제니안 이메일 jenny.ahn@kccus.org

목회자를 위한 가정사역 세미나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목회자를 위한 가정사역 세미나'가 "코비드 후 가정 사역 어떻게 할까?" 주제로 3월 15일(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강사는 정정숙 원장이며 세미나 내용은 △교인들의 필요 조사 △가정사역 자료 소개 △Q&A로 진행한다.

▲문의: (201)242-4422 / info@familytouchusa.org

뉴욕초대교회 김경신 사모 별세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김경신 사모(사진)가 3월 7일 오후 6시36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63세. 김 사모는 지난해 혈액암 판정을 받았으며 병세가 호전됐으나 최근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다. 고 김경신 사모는 현재 뉴욕



사모기도회 회장과 사모합창단 단장으로 있으며, 수차례 뉴욕 교협 사모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장례예배는 3월 14일(주일) 오후 3시 뉴욕초대교회에서, 발인예배는 15일(월) 오전 9시 중앙장사사에서 열린다.

▲연락처: (347)502-2571 (초대교회 사무실)

뉴저지동산교회 등 뉴욕나눔의집에 후원금 전달

지난 3월 4일, 뉴저지동산교회 윤명오 목사와 본촌치킨 레오니아점 및 저지시티점을 운영하며 김형모 장로가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해 한인노숙인들의 웰터구입을 위한 후원금 1만 달러를 전달했다.

윤명오 목사는 나눔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기도했다(사진).

뉴욕나눔의집은 리스가 연장되지 않아 웰터구입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후원문의: (718)683-8884

코비드 백신 단계적 투여 계획

월드허그파운데이션, 긴급 식량박스 지원 재개

월드허그파운데이션(World Hug Foundation·WHF)이 3월 3일 코비드19 긴급 식량박스 지원을 재개했다(매주 수요일 실시).

지난 5월 베이사이드 다이너에서 만난 이사장 길명순 권사는 WHF가 지난해 10월부터 해왔던 코비드19 식량 지원, 물품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WHF가 입양아 권의 찾기 단체지만 모든 것이 정지된 팬데믹 기간에 이웃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에 안도니

오 리베라 회장의 도움으로 식량박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돼 필요한 한인가정에 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길 이사장은 "박스 무게가 있어서 컨테이너 트럭에서 차로 옮기는 게 쉽지만 여섯분의 장로, 권사님들이 새벽 7시에 오셔서 운반해주신 것에 감사한다"며 그 모든 과정에 사람의 손길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WHF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회에 걸쳐



한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1차 월례기도회가 줌으로 열렸다.

4월부터 단비TV 통해 1분기도회

한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1차 월례기도회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가 3월 7일 저녁 8시 줌을 통해 제 1차 월례기도회를 가졌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첫 번째 월례기도회를 열게 된 것에 감사하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뉴욕지회 월례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국가조찬기도회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도한다. 기도하는 뉴욕지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해주실 줄 믿는다"고 인사했다.

뉴욕지회는 매월 첫째 주일 저녁 8시에 기도회를 갖게 되며 4월부터는 단비 기독교TV를 통해 1분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손 장로는 단비기독교 TV 방송과 동역하는 '1분기도회'에 대해 광고시간을 통해 설명하며, 이를 위해 3일 단비TV와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1분기도회는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기도시간'이라는 제목으로 1분 기도 제목이 화면에 나오고 나레이션과 함께 음성기도가 화면에 나가며 기도자의 사진은 화면 상단에 뜬다. 출연회수는 한달에 2명이 하게 되며 분방 1회

제방 2-3회로 방영된다. 제작 방법은 3가지로 논의 중에 있다.

이날 기도회는 회장 손성대 장로 인도로 기도 박용기 장로, 회장인사에 이어 명예회장 강현석 장로가 역대하 7:14를 본문으로 잠깐 말씀을 전한 후 합심기도 1)미국과 미국 대통령을 위하여/부회장 박해용 장로 2)대한민국 대통령 및 위정자를 위하여/부회장 이계훈 장로 3)국가조찬 뉴욕지회와 임원들을 위하여/사무총장 장세환 장로, 합심마무리 기도 부회장 김태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한국본부 사무총장 정도의 장로와 간사 나현정 과장이 줌으로 참여했다.

(기사제공: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자원봉사자들이 식량박스를 차에 싣고 있다.

1,480박스(박스당 47달러 상당)를 지원했다. 그 첫날이었던 7일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위해 120박스를 뉴욕 교협 측에 전달했다.

이 비상식품은 장애인 자립 지원 비영리단체 시다(CIDA)를 비롯 장애인선교회·주님의 식탁선교회·총만교회 등 11곳에 지급됐다.

또 WHF는 11월 20일 300명 아동들에게 장난감을 전달했으며 올 1월 14일에는 어린이용 얼굴보호헬드 2천개, 손소독제, 팝콘과 장난감 400개 등 스페셜 물품을 지원했다.

2월 25일에도 긴급 식량박스 80개를 지원했으며 등교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어린이 스페셜 용품과 손소독제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WHF는 식량과 물품 지원 외에 백신 지원도 시작했다.

지난 2월 28일에는 목양장로교회(담임 허신욱 목사)에서 무료 코비드 백신 제공을 위해 43명에게 테스트를 지원했다. 테스트 결과 43명 전원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

오는 3월 14일에는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무료 코비드 테스트를 지원한다(300명 예상).

길명순 이사장은 "백신 차례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젊은 층과 서부미비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싶다"며 백신투여를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양인 권의 찾기 취지로 2017년 설립된 WHF는 시민권 취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1달러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문의: (646)254-2992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제 88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새 노회장에 ...

(9면에서 계속)

교육부, 청소년 지도부, 각 시찰회 보고, 신안건 토의, 내회장소, 회의록 채택, 폐회 순서에 따라 진행됐다. 뉴욕서노회는 목사회원 40명,

선교사 5명, 장로총대 7명 등 총 52명의 노회원이 있으며, 동시찰(시찰장 이종열 목사) 13교회, 중시찰(시찰장 오영상 목사) 6교회, 서시찰(시찰장 승철 목사) 7교회로 나눠 총 26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아름다운교회 임시목사로 조문길 목사 2년간 파송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아름다운교회 임시목사로 조문길 목사가 2년간 파송됐다.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인미노회는 지난 3월 2일 오후 7시 줌으로 열린 제 96차 정기노회에서 이같이 결의, 파송했다. 조문길 목사는 동부한인미

노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총회 한인목회실에서 사역한 바 있다. 조 목사는 2023년 3월까지 아름다운교회 임시목



사로 사역하게 된다.

아름다운교회는 2018년 7월 황인철 목사가 사임하고, 2019년 2월에는 국윤권 목사가 청빙확정을 받은 후 청빙수락을 철회했으며, 2020년 11월에는 단독후보 김정준 목사의 청빙 인준에 필요한 80% 미달 등으로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태다.

(유원정 기자)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V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명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목회, 유년,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n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letra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c.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일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l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지역 2021 세계기도일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임원들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라!” 2021년 세계기도일예배 비대면으로 열려

2021년 세계기도일 미주지역 예배가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회장 이선미 장로) 주관으로 5일 오후 5시 노스필드장로교회에서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라'는 주제 아래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총회장 이선미 장로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계기도일예배는 사카고연합회장 안정자 권사가 세계기도일 기도문, 바누아트의 상황 등을 소개한 뒤 사카고 연합회 부회장 한혜숙 집사가 기도했다. 이어 시편 127편을 낭독하며 감사 기도한 뒤 바누아트의 여인들의 간증을 통해 그곳 여성들의 믿음의 실상을 전했다.

이날 권화경 권사는 마태복음 7장 24-27을 봉독했으며 노스필드장로교회 강선우 목사가 "견고한 터 위에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 목사는 "기도로 대한민국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와 모임을 통해 바누아트를 살리실 줄 믿는다"며 "지금 이 시대에 바람이 부는 시기다. 모래위에 세워진 집은 어떠한 화려한 집이라도 무너진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석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세계여성기도모임이 세운 이 기도모임은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한다. 지금 180여국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믿음으로는 견고한 반석위에 세울 수가 없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과 내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할 때 반석위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예배가 이벤트가 아닌 비누아트를 우리 심장에 심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봉헌시간에는 김숙영 권사(베다니장로교회)가 "이 헌금은 빈곤과 차별, 그리고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바누아트 교회 여성들과 불우이웃, 결식 아동, 노약자, 장애자, 세계선교를 위해 쓰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진자 권사(미드웨스트장로교회)가 헌금기도를 드렸다.

이어 △비누아트를 위하여 △열방과 교회를 위하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했으며 메이웨어 구세군교회 조용규 사관이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매년 온 세계가 같은 날에 지키는 세계기도일은 1887년 부당한 어려움을 돕고자 시작돼 현재 18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비누아트를 위한 기도문을 발표했다.

한편 2020년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 제 11차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2021년에 열리게 된다.

〈이성자 기자〉



2021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금 수여식이 남가주주말 사무실에서 drive thru방식으로 거행되었다

총 91명에 11만9천 달러 전달 2021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금 수여식

2021년도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금 수여식이 6일 오후 3시 남가주 밀알사무실에서 거행됐다. 예년에는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Covid-19 사태로 밀알 사무실에서 드라이브투 방식의 수여식으로 간단히 진행됐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2001년 출범한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금은 매년 가을 열리는 밀알의 밤 후원을 통해 그 재원이 마련되고 있다.

이종희 남가주밀알 단장과 이은철 목사, 이정수 이사, 그리고 양희원 칼스테이트(통비치) 교수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미주장애인

장학생 7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31명,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 제3국 및 중남미 장학생 10명, Covid-19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20명 등 총 91명에게 11만9천 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로써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총 지급액은 2백6십4만4천 달러다.

이종희 단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91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들이 더욱 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LA총연사관은 온라인에서 한국전기념비건립위원회 노명수 회장과 함께 사업비 기부를하신 분들께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성영락교회 설립48주년 은퇴 및 취임감사예배 집사취임2명, 집사8명 권사6명 은퇴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설립 48주년을 맞아 집사, 권사 은퇴 및 집사 취임 감사예배를 7일 오후 4시 대면과 실시간 동영상으로 진행했다.

박은성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안용주 목사 기도, 고혜미 권사 성경봉독(시 133:1-3), 강진웅 목사(갈보리 믿음교회) 설교로 진행됐다.

강진웅 목사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의 제목으로 "지난 1년 전후후후한 시간을 지내왔다. 이런 재난은 우리 생애에 또다시 오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48주년을 맞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일 것이다. 오늘은 말씀 기쁨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받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두팔 벌려 안아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며 혈몬산의 이슬이 매마른 땅으로 흘러가듯 나성영락교회는 혈몬산과 같은 교회여서 이민교회와 교단, 노회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하며 말씀을 전했다.

이어 은퇴 및 취임식에서는 당회서기 박영훈 장로가 한만표, 이금희, 안창훈, 김현식, 최

두영, 김의성, 박영범, 김용덕 집사은퇴와 박순희, 이경래, 김재각, 최미숙, 김영화, 강경옥 권사은퇴를 발표하고 은퇴패를 증정했다.

유해리, 강준 집사의 취임식은 취임하는 집사와 교우들의 서약이 있는 후 기도하고 취임을 선포했다.

노영호 목사(새한교회 담임)는 축사에서 "그동안 충성하다 은퇴하는 집사, 권사들은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었던 그 자체가 큰 복이다. 그동안 태해주시고 사용하심이 복이다. 지금까지 영락교회를 섬겼다는 자부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하한다"고 말했으며, 취임하는 두 집사에게 "취임하는 두 집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전심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부흥할 것을 믿는다"고 그동안의 헌신과 섬김을 치하하며 축하했다.

이어 새롭게 취임한 유해리 장로는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에게 감사한다"고 감사했으며 이날 모든 행사는 박은성 담임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올해 48주년을 맞이하는 나성영락교회는 지금 사순절릴레이 금식기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 14일부터 3부 예배를 대면예배로 재개한다.

(이성자 기자)



나성영락교회 창립 48주년 은퇴 및 취임식에서 유해리, 강준 집사에게 서약받는 박은성목사

3년 이상 세금보고 안하면 자격 상실 비영리단체 세금보고 무료강좌, 강사제임스구 교수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주관으로 열린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세금보고 온라인 무료강좌가 5일 오후 12시30분부터 줌 화상 컨퍼런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제임스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는 비영리단체 승인과정을 설명하며 "비영리단체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재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정부 및 은행 등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재정증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TAX Form에 대해 설명하며 "비영리단체는 매년 5월 15일까지 IRS Form 990이라는 Federal 세금보고와 CA Form 199이라는 California Exempt Organization Annual Information Return을 신고해야 하고 3년 이상 세금보고하지 않는 경우 비영리단체 자격을 상실하게 되니 최소한 3년



비영리단체 세금보고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는 제임스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 교수)에 한번 정도라도 세금보고를 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세금보고의 절차와 각종 서식에 관해 자세히 설명한 뒤 질의응답 형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구 교수는 시간 관계로 다 풀지 못한 궁금한 사항들은 이메일 icmm@churchhomepage.org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자 기자)

아시아 혐오범죄 반대 결의안 통과 최석호 거주하원의원 발의, 67 대 0으로

최석호 거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아시아계 혐오범죄 반대 결의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최 의원은 사무실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계 대상 공격 현상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67 대 0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피부색과 얼굴이 다른 인종이 서로 모여 미국에

사는 가운데 아시아에 대한 혐오와 언어폭력 및 공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인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위대한 미국이 건설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서로 다른 인종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 미주복음방송 개국 30주년 기념예배**
미주복음방송(대표 이영선 목사) 개국 30주년 기념 축하 감사예배가 11일(목)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본당에서 열린다.
▲문의: (714) 484-1190
- 남가주사랑의교회 2021 새생명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2021년 새생명축제가 오는 19일(금) 저녁 7시 30분, 20일 저녁 7시, 주일(21일) 1, 2, 3, 4부 예배시간에 진행된다. 본 축제 주제는 'The Healing'이며 강사로는 조혜련(방송인, 개그우먼), 조명환 교수(건국대 교수, 한국월드비전회장)가 초빙된다.
▲문의: (213)268-8344
- 은혜한인교회 고난주간 특별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고난주간 특별새벽부흥회가 3월 29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진행된다. 특별새벽부흥회 주제는 "예수 나를 위하여..."이다. 강사 한기홍 목사.
▲문의: (714) 446-6200
- 소망소사이어티 3월 웨비나**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매달 개최하는 3월 웨비나가 3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주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치매'. 강사는 UCI의 치매 및 뇌신경질환연구소인 MIND의 디렉터인 Joshua D. Grill 박사와 아시아아메리칸 디렉터인 신혜원 박사 두 사람이 치매와 관련된 궁금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15일(월)까지.
▲문의: (562-977-4580)/(somang@somangociety.org)
- 3월 어린이 건강 식습관 캠페인**
KFAM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3월 한 달 동안 어린이 건강 식습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3월은 '전국 영양의 달(National Nutrition Month)'이며, 14일부터 20일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푸드 프로그램인 CACFP(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의 홍보주간으로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자녀들의 하루 세끼 사진 혹은 식단을 카카오톡 아이디 KFAMLA로 보내면 어린이영양프로그램 고나영 매니저의 1:1 맞춤 영양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푸드 프로그램 운영방법이나 자격, 지원금액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문의: (213)235-4846 nko@kfamla.org

셋별선교회 창립자 이흥기 장로 별세

늘어나는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셋별선교회를 창립하고 지난 20여년 동안 헌신해온 이흥기 장로가 3월 3일 오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7세.

부인 이봉조 선교사와 함께 2003년 셋별선교회를 창립해 노인사역을 시작한 이흥기 장로는 매년 셋별선교회 찬양을동제



를 개최해 지난 2019년까지 제 16회 찬양제를 개최했으며 2008년도엔 성결월드미션(당시 총재 고 박재호 목사)이 주는 커뮤니티 봉사상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역을 중단하고 있던 이 장로는 지난해 8월 폐암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장례식은 토렌스에 있는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열릴 예정이나 일정은 미정.

유족으로는 부인 이봉조 선교사와 슬하에 1남1녀가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지미 정 등 8명에...9월 28일 준공식 LA총연사관, OC한국전기념비 건립기부자 감사패 증정

LA총연사관(박경재 총연사)은 지난 2월 24일 LA총연사관 5층 대회의실에서 오픈지카운티 한국전 기념비건립위원회 노명수 회장과 함께 한국전기념비 건립에 관심을 갖고 기금을 기부해준 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증정은 지미 정(J.C Property CEO), 김진모(오렌지카운티 평동협의회회장), 장문길·안재승(재향군인회 미남서부지회), 오렌지카운티 해병대전우회장(안성회 LA전우회장이 대리수여), 지중식(아리랑마켓 사장), 김복임(미주 근우회장), 모니카 류(한국전에서 전사한 故 전은경 육군대위 및 故 전유경 공군소령을 추모하기 위해 기부한 한국어진흥재단 회장), Ryan Lee(육군사관학교 한인학부회 회장) 등 총 8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경재 총연사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국 장병 36,492명의 이름을 모두 새기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념비적인 기념비'를 만들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한국정부도 사업비

30%를 지원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노명수 건립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지돼온 것은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국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며 "한미간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니카 류 회장은 "한국전에서 전사한 오빠 2명의 이름으로 기부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Ryan Lee 회장은 "미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 약 1만5천여 명이 한국전에 참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기념비 건립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전 기념비 건립사업은 지난해 8월 14일 착공식 이후 많은 관심과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올 9월 28일 서울수복 기념일을 계기로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문의: (714)514-6363 노명수 회장, (714) 858-0474 박동우 사무총장 (정리: 박준호 기자)

‘프레어 어게인’ 전국적 기도운동 돌입

예정합동, 4개월간 “부흥위한 기도의 힘 모으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이 7일 경기도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기도회복 운동 ‘프레어 어게인’(Prayer Again) 출범 감사예배를 드리고 4개월간 전국적인 기도운동에 돌입했다.

소강석 총회장은 “부흥은 기도로 시작된다”는 설교에서 “전국 목회자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기에 예정합동이 한국 교회의 장로 교단이자 세계 최대의 장로 교단이 됐다”면서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단이 썩어지고 교조화되며 교권 싸움이 시작됐고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예배 주도권을 빼앗기고 교회 생태계마저 초토화됐다”면서 “국민 여론이 나빠진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향해 부정적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는지 모른다”고 개탄했다.

소 총회장은 “많은 교회가 영적 답보상태에 있고 자포자기하는 목회자 소식도 들린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심령의 부흥”이라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소비를 하는 ‘골수 팬덤’ ‘프로슈머’가 되자”고 당부했다.

예배 후 발대식에선 총진행위원장인 최남수 광명교회 목사가 실무조직 위원들과 등단해 소 총회장으로부터 기도운동 깃발을 전달받았다.

최 목사는 “담임목사가 강단에서 울며 기도의 제물이 되면 한국교회의 대부흥은 다시 온다”며 “눈물이 말라가는 이 시

대에 하나님은 요엘서 2장 말씀처럼 목회자들에게 ‘강단에 올라가서 너의 눈물로 그곳을 적시라’고 명령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강단에 말씀의 불과 기도의 불이 타오르도록 염두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자”고 당부했다.

예정합동은 오는 6월까지 9개 권역을 돌며 기도의 열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기도회는 오는 21일 제주 동홍교회를 시작으로 광주중앙교회(3월 28

이슬람에 대한 적극적 연구와 선교위해 협력

예정합동 총회세계선교회·총회이슬람대책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이사장 이성화 목사)와 총회이슬람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광영 목사)는 지난 4일 경기도 화성 GMS선교본부에서 이슬람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슬람 관련 선교 협력 방안과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별개로 활동한 GMS와 이슬람대책위의 정책을 공유하고 연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진만 이슬람대책위 서기는 “과거엔 이슬람 관련 해외 선교는 GMS가, 국내 대책은 이슬람대책위가 따로 맡았다”며 “최근 GMS가 국내 사역으로 범위를 확장했고 코로나19로 한국에 머무는 해외 선교사도 늘면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이슬람에 대해 소극적 방어대책을 넘어 적극적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김철수 GMS 선교전략연구원장은 “이슬람에 대한 선교학적 연구와 구체적인 선교 실천을 위해 두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내에 무슬림이 많아질수록 지역교회의 선교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한국에 체류 중인 해외선교사의 역할도 논의됐다. 윤영민 GMS 중동지역위원장은 “국내 장기체류 중인 선교사에게도 이슬람 관련 주제강의를 하게 하는 등 일정한 사역의 역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이주민과 난민 등 국내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기산 GMS 행정사무총장은 “국내 사역자들을 해외선교사와 동등한 선교사로 인식하고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한국에 체류 중인 해외선교사의 역할도 논의됐다. 윤영민 GMS 중동지역위원장은 “국내 장기체류 중인 선교사에게도 이슬람 관련 주제강의를 하게 하는 등 일정한 사역의 역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이주민과 난민 등 국내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기산 GMS 행정사무총장은 “국내 사역자들을 해외선교사와 동등한 선교사로 인식하고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 ‘제사장의 자격과 의무’ ‘여호와와 절기’ 등을 다룬다. ‘마가의 귀신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신약 강좌에서는 거라사인과 이방인 어머니, 유대인 아버지의 사례로 자유, 고령관념 탈피, 믿음의 의미 등을 탐구한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기감 청년회 전국연합회(02-399-2170)로 하면 된다.

시며 기도의 필요성에 공감해주시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캠퍼스를 위한 이 거룩한 기도운동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캠퍼스33 기도운동의 소개와 영상은 유튜브와 예수제자운동 홈페이지(www.campus33prayer.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campus33pray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자료(포스터, 기도카드, 팸플릿, 영상)는 ‘캠퍼스33 기도운동본부’에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A-PEN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난민사역하는 선교사들과 난민 현황을 공유했다. 한국은 정부는 물론 국민들까지 난민에 소극적이며 폐쇄적으로 접근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봐도 1994년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난민신청자 7만1042명 중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1091명에 불과하다.

연구소의 활동 계획을 묻자 김 소장이 ‘난민’과 ‘이주민’의 차이를 되물은 이유도 이것이다. 난민에 대한 시선을 바꾸려면 난민의 개념부터 제대로 세우고 접근해야 한다.

그는 “난민과 이주민은 엄연

재난시대... 이웃과 자연 향한 회심

예정합동, “7일은 사회봉사주일” 전달

코로나19가 휩쓴 재난의 시대에 한국교회의 사회선교를 되돌아보는 주일이 준비되고 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 자연을 향한 생태적 회심이 라는 두 가지 주제가 강조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통합 총회 사회봉사부는 오는 7일을 ‘사회봉사주일’로 지키기 위해 전국 노회와 교회에 총회장 목회서신, 설교문, 공동기도문 등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신정호 총회장은 목회서신에서 “1978년 제63회 총회에서 매해 3월 첫째 주일을 사회봉사주일로 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의 시기에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 자본과 권리에 중독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자연의 파괴 등 밀바닥과 주변을 살피자”고 말했다.

김은혜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능력,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태적 공통 감수성”이란 소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사회선교는 근본적으로 ‘이웃 사랑과 봉사

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그리스도인 본연의 삶의 방향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선교의 우선순위는 지금 고통받는 이웃이며, 코로나19 재난은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고 어려운 이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선교는 고통받는 이웃의 범위를 신음하는 피조세계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교회가 기후위기에 온전히 대처하지 못하면 내일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을 품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회 사회봉사부장인 임한섭 순천 복음사랑교회 목사는 ‘신뢰를 회복하는 한국교회’란 제목의 설교문을 전했다. 임 목사는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교계 지도자들의 막말, 목회지대 물림을 둘러싼 갈등, 몇몇 교회의 분쟁과 재판, 코로나19 방역에서 드러난 사랑제일교회, 인터컴(BTJ열방센터), IEM선교

회, 광주 안디옥교회 등의 확진자 증가, 정인이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목회자 가정 출신의 양부모 폭력, 사안마다 진영논리 싸움을 하는 일들은 한국교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게 했다”고 나열했다. 임 목사는 “교회의 사회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과 생애사랑, 정의실현, 평화운동을 펼치는 것”이라며 “진보와 보수, 좌우,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도시교회와 시골교회 모두가 힘써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인천 주안복지재단 사무국장 배성훈 목사는 “불교는 생태 생명 마음챙김의 가치를 화두로 삼아 오랫동안 한국사회와 공유했다. 천주교는 정의 영성 카리타스(박애)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노력하는데,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와 공유할 가치가 빈약하고 ‘예수사랑 큰잔치’ ‘새생명 살리기’ 등 교회 내전도 프로그램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목사는 “한국교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문화행사, 마을학교, 생태지킴이 등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역준수... 신임회장 정재용 목사

기하성 순지방회 정기지방회 성사시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지방회 소속 목회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지키며 줌 화상회의와 최소인원 현장참석 방식으로 3월 정기지방회를 진행했다.

4일 오전 11시 1호선 회기역 인근 서울중앙교회에서 개최된 이날 정기지방회에서 역대 최 31장20-21절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담당한 정재용 목사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히스기야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겸허하게 서 있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깨달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바로 교회를 깨

끗하게 한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더러운 죄악도 깨끗함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지방회는 이날 박문옥 목사를 비롯 이경우 목사(열린문교회)와 정창교 목사(순복음평강교회)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 뒤 정재용 목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순복음대학원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중대결정이 이달 중에 가시화될 경우 교수 요원으로 활동해온 목회자들이 교수직을 되찾을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위기, 이단문제 어떻게 대처...”

바이블백신센터, 이단상담전문가 양성과정 진행

바이블백신센터(원장 양형주 목사)가 3월 8일부터 사이비·이단 종교에 빠진 이들의 회심을 돕는 이단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블백신센터는 이날부터 10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제1기 이단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을 줌으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이단 상담에 관심 있는 평신도 지도자 등이다.

강사로는 이단 전문가 양형주 목사를 비롯해 신현욱 구리 이단상담소장(목사)과 관남캠퍼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부장(목사)이 나선다. 신 목사와 권 목사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서 고위급 간부로 활동했다. 회심한 신천지 전문가다.

양형주 목사는 “한국교회 이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며 이번 과정을 개설했다”면서 “이번 과정은 단순히 이단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단 단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이단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소멸 위한 기도운동 펼친다

세계교회연합기도운동 교계 단체 다수 참여

교계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한다.

세계교회연합기도운동은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층 크로스로드선교회(대표 정성진 목사) 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전 세계 부활절 한 마음 기도행동’ 기자회견

이어 “이단 상담 현장을 두루 경험한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 균형 잡힌 이단 상담 전문가가 되길 바라는 이들에겐 건강한 성경 신학적 관점을 갖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단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은 4학기로 나눠서 진행된다. ‘구원론’ ‘종말론’ ‘바른 계시록’ 등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성경 신학과 함께 ‘이단 교리 비교’ ‘신천지 교리 반증’ 등 실제 이단 단체들의 사례를 배우게 된다.

‘성경의 재탐구’ 청년 바이블 클래스 연다

기감 청년회,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온라인 강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 청년회전국연합회(회장 최은미)가 오는 8일부터 온라인 바이블 클래스를 개강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감 산하 교회 청년들에게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바이블 클래스는 오는 6월 7일까지 14

차례 강의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이의상 성서학연구소 비블리아 대표와 이진경 협성대 교수가 각각 구약과 신약을 맡았다.

구약은 ‘신앙의 첫 걸음 레위기’를 주제로 ‘율법’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전염병’ ‘제

우리의 기도로 캠퍼스 복음화를!

JDM, ‘캠퍼스33 기도운동 캠페인’ 전개

초교과 선교단체인 예수제자운동(JDM, 대표 윤태호 목사)은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캠퍼스33 기도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22번째 진행하는 이 기도운동에는 현재 지역 교회 300여 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50개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캠퍼스33 멤버스’로 동참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대학교의 청년 지도자 24명

의 기도 요청 영상을 지난달 7일부터 매일 한 명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새벽기도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1~6일 매일 새벽 5시 30분에 특별새벽기도회 라이브를 송출한다(채널검색 ‘캠퍼스33기도운동’ 또는 ‘제렘TV’).

특히 3일은 ‘집중 기도의 날’로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했다. 주최 측은 “매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영상을 보

“교회는 난민사역, 정부는 정책 고민할 때”

난민연구소 초대 소장 김요한 파리제일장로교회 목사

정부의 난민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교회의 난민선교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난민전문 연구소가 출범했다.

난민연구소는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조이어스교회에서 개소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시작했다. 아랍-페르시아·유럽 네트워크(A-PEN)와 초교과 신학대학인 아시아연합신학대(ACTS)가 설립한 연구소는 지난해 2월 ACTS의 정식 인가를 받았으나 코로나19로 1년 만에 문을 열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에서 지난 4일 초대 난민연구소장 김요한 파리제일장로교회 목사를 만나 연구소의 활동 계획을 들었다.

김 소장은 “전 세계가 ‘난민 시대’를 맞이했다”며 연구소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난민은 약 80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빈곤 전쟁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난민사역, 한국정부는 난민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에서 난민에 대해 시선은 아직 부정적이다. 그

선교의 창 (165)



송송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비 거주 선교 사역(Non-Residential M. Ministry)

오늘날 세계전쟁은 임체작전이다. 전, 후방이 없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현지에 파견된 지상군만으로 불가능하다. 세계선교도 마찬가지이다. 거주 선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게리슨(D. Garrison) 박사는 “비 거주 선교전략은 세계 인구의 1/4에 달하는 미전도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장애물로 막혀 있는 국가나 부족에게 획기적인 선교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비 거주 선교는 세계선교전략 가운데 꼭 필요한 한 축임을 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지금은 COVID19로 인하여 지구촌의 선교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거주”라는 전통적인 선교만을 고집한다면 한인 세계선교는 힘을 잃을 수도 있다.

1. 비 거주 선교사의 정체성

비 거주 선교사란 용어는 1986년 미국 남침례교 해외선교부에서 비 거주 선교분과를 신설하였고 데이비드 게리슨(David Garrison)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이후 1989년 로잔 II 마닐라 대회에서 비 거주 선

교사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채택한 사람들은 그것이 이 시대의 소산물임을 강조한다. 그렇다. 비 거주 선교사란 누구인가? 이들은 선교지의 제약조건뿐 아니라 추방 등으로

한 선교지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반드시 가지 않더라도 국내나 선교지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특정 민족, 이주자들을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비 거주 선교사라 부른다. 문제는 비 거주 선교사들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낮고 당사자 본인들도 분명한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부르심의 확신과 준비됨이 없이 어떻게 깊고 넓은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 분명컨대 비 거주사역은 거주사역보다 열등한 형태의 것이 아니다. 다만 선교의 양태가 다를 뿐이다.

2. 비 거주선교에 대한 한인 사역의 실태

그간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여러 모양의 비 거주선교를 해왔다. 그것은 주로 단기선교였다. 단기선교가 비 거주선교인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특별한 목표 없이 단회적이며 전문성이 결여된 단기선교는 비 거주선교로 간주하기 어렵다. 여태껏 단기선교란 이름하에 행해진 대부분의 사역은 Mission Trip이었다. 어쩌든 우리에게 비 거주 선교라는 개념이 아직 낯설고 이해도가 낮다. 그러다보니 너무 무질서한 가운데 그 자격이 무 동기가 의심되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이들 중 어떤 이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선교지의 물을 흐리게 했다. 그 결과로 거주 선

교사들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거주 선교사와 비 거주 사역자간 주도권 문제로 충돌이 일어난 곳도 있다. 이에 부담은 느낀 교회는 아예 거주 선교사와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 방식은 말 잘 듣는 현지인을 끼고 속 편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 거주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선교사로서 제대로 훈련 받고 자격을 갖춘 자들이 극히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 분야를 받쳐주는 선교신학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3. 비 거주선교 사역의 필요성

20세기 들어서부터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세계 1, 2차 대전 이후 소위 제3세계 국가들은 저마다 독립하여 자기 성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자기 종교나 이념적 체계를 앞세워 타 종교에 배타적 일방만 아니라 적대적이기도 하다. 특히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그리고 문화가 매우 열악한 곳에서는 선교사가 장기 거주하기 어렵다. 거주할 수 없는데 그 곳에서 어떻게 선교하란 말인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답이다. 비 거주선교가 대두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신(新) 노마드(nomad, 유목민)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정보화, 세계화가 사람들을 정착민적 삶을 변형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선교의 대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현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비 거주선교를 활성

4. 비 거주 선교와 비 거주 선교사

비 거주선교와 비 거주선교사의 관계는 어떠한가? 비 거주선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기 종교나 이념적 체계를 앞세워 타 종교에 배타적 일방만 아니라 적대적이기도 하다. 특히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그리고 문화가 매우 열악한 곳에서는 선교사가 장기 거주하기 어렵다. 거주할 수 없는데 그 곳에서 어떻게 선교하란 말인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답이다. 비 거주선교가 대두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신(新) 노마드(nomad, 유목민)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정보화, 세계화가 사람들을 정착민적 삶을 변형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선교의 대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현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비 거주선교를 활성

첫째로 비 거주선교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부르심의 확신이 없으면 한 성도로서 선교에 참여하면 된다. 굳이 공인인 선교사의 타이틀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둘째로 공식적인 선교훈련과 행정 절차를 밟아 선교회에 가입해 팀 사역을 하는 것이다. 거주 선교사나 현지인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과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 특히 현지의 선교인프라와 네트워크가 비 거주선교사의 은사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셋째로 사역의 보조역을 맡는 것이다. 비 거주선교사가 현지에서 사역을 무리하게 주도하면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 사역의 리더십은 거주선교사나 현지인 사역자에게 맡기고 주로 돕는 사역을 할 때 아름다운 동역이 된다.

맺음 말

세계선교는 혼자 할 수가 없다. 한 단체도 할 수가 없다. 부름 받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거주, 비 거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각자 소명과 은사와 준비됨을 타 문화의 경계를 뛰어 넘어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한다. 사역의 속도감과 효율을 위해서는 거주사역과 비 거주사역이 함께 가는 것이 좋다. 거주사역과 연계 없는 비 거주사역은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비 거주사역 없는 거주사역만으로는 한계성이 있다. 이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네트워크를 이룰 때 이상적이다. 거주자와 비 거주사역자가 맞춤형 팀워크를 이루면 사역의 극대화가 나타날 수 있다.

jrsong007@hanmail.net

5. 비 거주 선교사의 역할과 방향

비 거주 선교는 일반적으로 리서치, 비즈니스, 훈련, 강의, 의료, 문서, 방송 등 단기간 효과를 보거나 꼭 삶을 함께 할 필요가 없는 사역분야에 적합하다. 아무튼 효과적인 비 거주 선교사역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거주 선교와 비 거주 선교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거주 선교와 연계 없는 비 거주 선교는 위험요소가 많다. 비 거주 선교는 거주 선교를 돕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마땅하다.

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 세계는 어디든 하루 만에 갈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세계정보도 볼 수 있다. 나아가 차세대 선교인력동원의 향방이다. 다음 세대들은 한 선교지에 오래 머물면서 사역하기보다 자기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다니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에게는 유동적 선교 패러다임이 훨씬 현실적이다. 이는 비 거주선교(Non-residential Mission) 개념에서 멀티 거주선교(Multi-residential Mission)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는 말이 아니다. 단지 선교현장의 질서와 효율성 그리고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한 자연인으로서 비 거주선교에 참여하는 자와 비 거주선교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원로칼럼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완장’공화국

50여년 전의 일이다. 필자가 전방부대의 군목으로 일할 때였다. 새로 전임한 신병 중에 사회에서 좀 놀던 자가 들어왔다. 그는 나이도 많은데다 삼류 쇼 무대에서 사회를 봤다고 주먹도 있었다. 그러나 군대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사사건건 사고를 치는 문제사병으로 낙인 찍혔다. 요즘은 이런 자를 관심사병이라고 한다지만, 부대장을 비롯해서 장교들은 그 병사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지휘관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다. 지휘관은 그에게 위병소의 근무자로 발령

을 내고 완장을 채워주었다. 계급도 아예 병장으로 달아주고 위병소 안에 있는 간이 영장을 관리까지 하도록 했다. 당시 군대에서는 이런 경우를 마이가리 병장이라고 했다. 그는 갑자기 얻은 완장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 우선 부대를 출입하는 모든 장병들의 군기를 잡고 위협적으로 부대 내에 임시영창의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톡톡히 해냈다. 지휘관으로서의 관심사병에게 완장을 채워줌으로서 부대를 원만히 이끌 수도 있고, 말쑥꾸러기를 잘 관리하는 꼴이 되었다. 그런데 완장을

찬 그 사병은 자기 뒤에 지휘관이 있음을 알고, 점점 권력을 행사하더니 폭력까지 휘두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기 권력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갈취한 사건 때문에 일등병으로 강등되고 완장이 벗겨지고, 도리어 자기가 관리하던 영창에 갇히게 되었다. 권력의 뒷배를 믿고 설치다가 우습게 된 사건이었다. 필자는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1983년 윤희길씨 쓴 소설 “완장”이 생각난다. 이 소설은 MBC에서 드라마로 방영되었고, 그 소설과 드라마는 오늘의 한국 상황의 민낯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임종술은 농평이요 건장이 사용권을 확보하고, 유료 낚시터로 개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다가 객지를 돌아다니던 종술이에게 월급 5만원에 감시원 자리를 주고 비닐 완장을 채워준다. 그러나 종술은 노랑 바탕에 ‘감독’이라는 파란글씨 에다 좌우로 세 개의 빨간 줄을 그린 비닐완장을 맞춘다. 그래서 이 소설은 사람이 완장을 차면 어떻게 돌변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완장을 차

는 사람이 과거에 전과가 있거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완장을 차면 더욱 돌변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완장은 권력이다. 그러니 종술은 완장을 차고 난 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마을 이장이고, 경찰이 되고, 친구도, 동창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폭력을 가하고 거들먹거렸다. 이제 종술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질주하고 있었다. 완장은 곧 종술이고, 종술은 곧 완장이었다. 그는 완장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알아버렸다. 하지만 그 마을에 최악의 가뭄이 들자 관청에서 저수지의 물을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로써 종술에게 완장을 채워준 최사장의 계획도 무산된다. 그래도 종술은 끝까지 완장에 매달리고 쥐꼬리만한 권력에 심취해서 그것을 놓지 못한다. 그러다가 애인인 부월이가 종술을 찾아와 완장을 뺏어 저수지에 던지고, 그 완장은 물 위에 둥둥 떠내려갔다. 이것은 소설이지만 현실이다. 현실이 소설화 된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완장 공화

국’이다. 아주 멀쩡한 사람도 ‘완장’을 차면 기고만장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특히 과거에 민주화투쟁하고 운동권에서 날리던 사람들이 완장을 차면 완전히 돌변한다. 특히 이런 저런 불법 또는 사회주의 경력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마을 이장이고, 경찰이 되고, 친구도, 동창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폭력을 가하고 거들먹거렸다. 이제 종술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질주하고 있었다. 완장은 곧 종술이고, 종술은 곧 완장이었다. 그는 완장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알아버렸다. 하지만 그 마을에 최악의 가뭄이 들자 관청에서 저수지의 물을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로써 종술에게 완장을 채워준 최사장의 계획도 무산된다. 그래도 종술은 끝까지 완장에 매달리고 쥐꼬리만한 권력에 심취해서 그것을 놓지 못한다. 그러다가 애인인 부월이가 종술을 찾아와 완장을 뺏어 저수지에 던지고, 그 완장은 물 위에 둥둥 떠내려갔다. 이것은 소설이지만 현실이다. 현실이 소설화 된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완장 공화

고 있던 완장도 그들에게 공산주의 이상을 달성하려는 폭력의 상징이었다. 물론 한국의 모든 과거 정권도 완장을 채워주는 자들과 완장을 찬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오늘처럼 정부의 관리들이 범조계에 완장을 차고 있는 자들이 그토록 문제가 많고, 흠결이 많아도 완장 채워준 자의 뒷배를 믿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스럽다. 요즘은 구형직원, 동직원들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대면예배 감시를 하는 것도 완장 채워준 자를 위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겁박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1880년 10월 20일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뿌라야(자유) 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외친 연설이 생각난다. “이 학교를 세우는 이유는 국가지상주의, 위상주의, 국가가 교회, 개인의 신앙, 교육 등을 모두 장악해서 개인의 자율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독재와 국가지상주의를 위해서 완장차고 설치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skc0727@yahoo.com

선교 펴기

에스와티니

2021년도 첫 번째 소식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사50:4).

금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참 세월이 빠름을 새삼 느낍니다. 주변의 여건들이 쉽지 않으니 심신이 힘들게 느끼는 시간들이어서 이전에 비하면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은 어느새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그래도 위의 말씀처럼 금년 남은 시간들을 학자들같이 곤고한 자들을 말로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또 학자들같이 잘 알아들어서 조금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

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의 코로나 현황은 금년 초에 비하면 수직상으로는 신환의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서 하루 50명 이하입니다. 그래도 여기저기서 희생된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국왕도 양성으로 나왔다가 별다른 문제없이 음성으로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고, 아직도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과 집회금지가 풀리지 않고 있으며, 학교들도 아직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마도 이달 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처럼 조심하면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들이 이곳 아프리카 땅에도 나타나서 지난겨울(한국의 2020년 여름)에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더니 이번 여름(한국의 겨울)엔 비가 한국의 장마처럼 계속해서 너무 많이 와서 집들이 무너지기도 해서 사람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3월에 들어섰으니

좀 달라지리라 기대합니다. 지난해 이맘때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계속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였고, 백신이나 치료제 등의 개발 소식이 있어 금년은 조금 희망을 가져보기는 하지만 이곳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까지 효과가 미치지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식품공급사역은 한인교회와 한인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을 선교사님들이 감당할 때에 현지를 다니고 현지인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 중에서도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독교대학교의 의대설립문제도 아직 이곳 정부당국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그리고 어떠한 결과이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면으로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시온산에 선 어린양(계14:1-5)찬502장

상징과 문자가 뒤섞여있는 계시록 해석은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 시온산의 어린양은 상징주의 혹은 예표로서 예수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그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까? 첫째, 시온산은 적그리스도의 이지트인 자폰산(북극집회의 산, 사14:13)과 대조되는 것으로 구속을 이룬 보좌를 상징합니다. 종말시대의 교회는 모든 죄를 사함 받고 모든 원수를 다 멸하고 완전히

승리한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둘째 어린양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친히 대속물이 돼 자기백성의 죄를 모두 처리하셔서 그 자리에 굳게 서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어린양은 친히 인도하는 무리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소속과 활동이 어린양께 속한 거룩한 자들입니다.

화 십사만 사천인(계14:1-5)찬167장

시온산에 선 거룩한 무리인 교회를 왜 14만4천인이라 했습니까?

첫째, 14만4천을 택한 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에 많다는 뜻으로 1000을 곱한 수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에 모든 택한 자를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4만4천수를 가지고 유희하는 이단의 가르침에서 자유 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은 3가지 표식을 가집니다. 이마

에 어린양의 이름의 표를 가지며,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양의 보호를 받습니다. 666표와 대조할 때 그들은 어린양에 소속된 하늘의 표를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가리키며 새 노래는 구속을 주제로 삼은 노래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곧, 절대 확신으로 어린양은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 복된 백성이 된 것을 찬양합니다.

수 천상예배(계 14:1-5)찬9장

시온산에 어린양과 함께 서 있는 그들은 3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그들은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선택과 소유의 확신을 상징으로 표현하듯이 교회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며 영원을 위해 살아갑니다.

둘째,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천상의 예배자들이 부른 찬송이 그들의 새 마음에서 흘러나

옵니다. 거룩한 찬양을 흠양하시는 하나님은 그 노래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셋째, 그들은 어린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마의 인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더 확실히 보였습니다. 속량 받은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자들입니다(요15:5).

목 두 천사가 전하는 복음(계14:6-8)찬330장

여기 나온 마지막에 펼쳐질 복음은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첫째,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6). 그리스도가 주신 대위임령의 권위는 반드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최종시대에 전할 이 복음을 아는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며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만듭니다

(7).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요약되고 그를 통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참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우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참예배자로 사는 길뿐입니다.

셋째, 이 복음은 바벨론, 곧 세상을 심판함으로 의를 세웁니다. 그 복음을 가진 우리는 복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합니다. 어디서나 이 복음증거에 조정을 맞춥시다.

금 셋째 천사의 심판사역(계14:9-11)찬503장

셋째 천사의 나팔은 구체적인 심판을 보입니다.

첫째, 그 심판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9). 그렇게 교회를 괴롭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천하에 들어내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둘째, 그들은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불행한 수단이 되어 지옥의 형벌을

경험합니다.

셋째, 영원히 쉼이 없는 곳에서 삽니다. 최소한의 긍휼마저 거절되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니 최소한의 안식마저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타오르는 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형벌의 장소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복음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합니다.

토 성도의 인내(계14:12-13)찬431장

셋째 천사의 심판은 구원과 심판이 섞여있지만 구분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명시한 것은 인내로 표현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성도는 인내함으로 계명과 믿음을 지킵니다(12). 인내는 사랑의 기초이고 믿음의 기반이고 소망의 근거입니다. 인내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계명을 지키며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됩니다(13). 인내로 계속 머무는 주 안의 삶은 죽으나 사나 복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원한 안식과 상급이 따릅니다(13). 참 성도의 마지막은 영원한 안식과 상급이 따르기에 복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그리로 나가도록 부름 받았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1)

서론

COVID 19가 가져다준 교회전반에 걸친 파장이 핵 폭탄급이라고 하면 교회 예배와 음악에 대한 파장은 수소 폭탄급이라 할 만큼 실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교회에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교회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방향 속에 많은 혼란과 갈등을 빚으며 서로의 정당성을 놓고 지금도 열띤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의 목회 방향과 각 교회의 현실과 문화에 따라 예배음악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점검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예배와 음악의 본질이다. 물론 지금은 비상상황에서 임시적으로 펼쳐지는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요소들이 정착해서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 뿌리내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상황이 비록 바뀐다 할지라도 다른 것과 구별하여 그 무엇을 무엇으로 만들어주는 절대적인 기준, 즉 영원한 본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을 내세워 현실 상황에 맞추어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물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와, 제도 그리고 형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본질은 절대 변할 수 없다. 이러한 혼란함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 각 분야별로 올바른 지도자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1. 역사적 고찰

모세의 시내산 예배, 이것을 최초의 공식적인 예배로 성경은 이야기한다(출24:1-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을 맺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시내산 사건이다. 이 언약을 성취하는 증거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날 공중예배(Public Worship)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요소들은 후대의 유대교나, 기독교의 예배 가운데서 더 상세히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서 그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가 총 5가지임을 알게 된다.

첫 번째는 만남을 소집한 주체는 하나님이고(출24:1-2),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역할이 있음을 이해한다. 즉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각자 모든 역할이 있었다(출24:3-6)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선포가 있었던 것(출24:7)을 본다.

교회지도자는 역사 통해 기독교 예배와 음악의 본질 알아야 비상상황에서 임시적이라도 본보기로 뿌리내릴 위험성 있어

특히 예배와 음악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교회음악 지도자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C.S. 루이스는 역사를 잘 이해하면 우리 시대가 무시하고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이론을 펼치듯이 일반적으로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과거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진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역사를 통해 교회 예배와 음악 교육을 연구하는 것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예배와 음악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접점이 되는 세 부분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초의 공식 예배인 모세의 시내산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내용의 중심으로 전환되어진 초대교회의 예배,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 새로운 개신교 예배로의 시작을 고찰하려 한다.

이 역사적 사건들에 거울을 대고 예배와 음악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또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떠한 도전들이 전개되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고수해왔는지 관찰하려 한다. 이것을 통해 오늘의 예배와 음악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전개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려고 한다.

1. 모세의 시내산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세브로드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뒷자레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3)



헨리 나우웬은 조건 없는 사랑을 원하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음에도 집안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천주교 신부가 되기 위해 신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은 더욱 그의 사랑에 대한 갈증을 증가시켰다. 그 교육은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말라는 교육이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친밀함을 원하고 있었다.

헨리 나우웬은 독신생활을 해야 하는 천주교 성직자들이 친밀함을 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알았다. 성직자들은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거나 특별한 관계를 가질 때 오는 위험들을 강조하는 신학교 교육을 받았다. 신학교에서 그는 누구라고나 친구가 되지만 특정한 한 사람과 특별히 가까워지지 않게 만드는 환경에서 그는 친밀한 교제를 필요로 했다.

활동을 하였다. 이웃을 돕는 봉사도 있었지만 그의 내면의 깊은 동기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그는 거기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페루에 있을 때 나우웬은 이제 선교활동은 진주를 파는 쪽에서 찾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한 한 선교회 소속 사제의 통찰에 크게 깨우친 바가 있었다. 나우웬은 가난한 이들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빈한한 자들에게 사역하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들에게서 오히려 예수를 찾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는 페루 고

망했다. 그는 강의하고 강해를 받은 후 완전히 혼자된 느낌을 받는 적이 많았다. 행사 책임자들은 강의 후 그를 식사나 티파티로 초청하는 일을 잊은 적이 많았고, 그것을 개인적인 모욕

다. 하버드는 지적인 삶과 관계 맺어야 하는 곳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영적인 삶을 더욱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우웬은 더 많은 교수들이 기도하는 학부의 일원이 되기 원했지

한 것이 첫째가 아니었다.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갈증이 그를 데이브레이크를 찾게 했고 그는 거기에서 비로소 조건 없는 사랑을 맛보았다. 그의 전기를 썼던 크리스토퍼 드 바빙크는 이렇게 썼다.

“헨리 나우웬은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로서 그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선택이 자신을 위해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고 느꼈다. 그는 신학교의 신학이 그에게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내 가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이었다. 말하자

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고,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나 신음으로밖에 반응할 줄 모르는 우리를 아담과 일하면서 그는 실로, 사막의 수도자들이 오랜 수행 끝에 도달하는 겸손과 비움을 배웠다.

그가 아담을 돌보면서 보낸 시간은 더없이 귀중한 목사의 시간이었다. 자신의 전 생애는 안에서 싸우는 두 음성의 삶이었다고 헨리 나우웬은 말한다. 한 음성은 성취하고 이루어진 부추겼고 또 한 음성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위로 가운데 안식하라고 일렀다. 생애 마지막 심년간에야 그는 진정으로 두 번째 음성을 들으며 살았다.

나우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이셨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받는 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 때 진정한 치유와 자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이제 분명히 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려온 그 말씀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는 바로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형제자매 된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라는 진리를 일단 마음속에 받아들여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서 장애인 아담 돌보며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하고 경험...

신학교 교육은 육체를 죄악 시켰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인 친밀성을 경험할 수 없었다. 그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외로웠다. 신학교에서 그는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신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를 엄격하게 다스려야 했다.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사위할 때 얇은 옷을 입어 서로가 완전히 별거벗은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했고, 잠 잘 때는 이불 위로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개어 놓았다. 육체는 믿을 수가 없었다. 죄 많고 파괴적으로 정처 없이 거닐 경향이 있는 육체는 천국을 향해 가는 체찍질을 받아야 하는 노새였다. 그는 남미 페루에 가서 봉사

아들을 통해 애정에 굶주린 사람이 육체접촉으로 위로받음을 알았다. 육체를 죄악시키는 그의 천주교 신학교 교육의 약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페루에 가 있는 동안 헨리 나우웬은 이렇게 썼다.

“신체 접촉의 힘을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직전에 다녀온 고아원이 있었다. 애정에 굶주린 그곳 아이들은 나우웬을 서로 만지려고 다투었다. 그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요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 이하였다. 그는 추후뿐 아니라 친밀함을 갈

으로 받아들였다.

나우웬은 자신의 필요와 불안정 때문에 친구들에게 관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때로 친구 관계를 구걸하는 거지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일기에 적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최고의 지성의 전당인 하버드에서도 그는 외로웠다. 그곳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추구하기보다 지적 토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소속할 곳을 찾고 있었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었

만 기도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혼자라고 느꼈다.

그는 소속할 곳을 찾고 있었다. 장애인 공동체 라르쉬를 시작한 장 바니에가 토론토 라르쉬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를 소개했을 때 헨리 나우웬은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임을 알았다. 또한 좀 더 급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도록 인도해줄 것임을 확신했다.

나우웬이 데이브레이크 장애인 공동체를 찾는 이유는 봉사하거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

면 그는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기 위해서, 넘쳐서가 아니라 모자라서 그곳으로 간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장애인 아담을 돌보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하고 경험했다. 그 사랑은 그가 평생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그는 아담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나우웬이 육체적인 중증의 장애인 아담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중증의 장애인인 우리를 사랑하

는 바로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형제자매 된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라는 진리를 일단 마음속에 받아들여

[참고저서] 크리스토퍼 드 바빙크, 김동환 역, “헨리 나우웬”(서울: 요단, 1999), 마이클 포드, “헨리 나우웬”, 헨리 나우웬, 김명희 역, “영성의 길”(서울: IVP, 1996)

에스와티니

(13면에서 계속)

스와코센터의 사역도 주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미약하지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의 초청사역은 지금까지 1년을 쉬었고 앞으로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지만 이곳의 담당 부서 사람들이 오히려 여유를 가지면서 좀 더 기다려보자고 이야기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동역

하시는 박재형 교수님(영상의학과)은 의뢰된 CT 판독을 해주시는 사역만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 등 여러 문제들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년도 소식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에스와티니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김선영 드림

기도제목

1. 필요한 장,단기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2. 의대문제에 대한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잘 바라보고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3. 이곳에서 한인 선교사님들의 식품공급사역 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 선교지의 여러 문제들과 금년도 사역들에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sykim@cnu.ac.kr

...교회예배와 음악

(14면에서 계속)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음악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창세기 4:20-21로 아담의 7대 후손인 야발과 유발에 대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히브리 예배의 두 요소인 제사제도 (animals for a burnt sacrifice)와 찬양(Sacrifice of Praise)이 있음을 알게 된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

았지만 이렇게 예배에서 찬양을 드릴 때 자신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음을 짐작한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음악예배(Musical Worship)는 바로 최초의 공중예배인 시내산 예배가 있기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건넌 이후 드리는 찬양예배였다. 모세와 그의 누이 동생인 미리암이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애굽의 군병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주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드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출15:1,20-21). 이것은 예배에서의 회중찬양의 모체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처럼 히브리 예배의 처음예배는 음악과 함께 태어났고 예배에서 모든 회중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드높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창조목적(사43:21)을 이룬 예배에서의 올바른 찬양관을 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iyoon@wmu.edu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처 : jp@midwest.edu

“교인들과 나누던 이야기들이 그림다!”

TGC, 메간 힐 사모의 코비드19 이전 교회에서 나누는 가벼운 이야기들의 중요성 보도

좋은 글을 쓰는 사모로 알려진 메간 힐(Megan Hill)은 코비드19 이전에 가졌던 교회에서의 짧은 만남의 가치를 그리워한다.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과 나눴던 정말 소중한 잡담들을 통해 서로를 알

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하던 소위 '주변관계의 교제'가 사라진, 현재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준다(Church Small Talk Was More Important Than I Thought).

교회에 린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다.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우리는 거의 매 주일 교회에서 만나면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또는 복도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나를 자주 안아줬고 우리는 이번 주에 할 일에 관한 세부정보를 교환하곤 했다. 린과 나는 성격도 다르고 생활환경도 비슷하지 않다. 사실 그런 차이가 우리의 대화를 즐겁게 만든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린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가끔 교회의 예배실 건너편에서 그녀를 봤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마주치지 않는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화장실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고 복도에서 우리 사이의 거리를 넓혔다. 우리 교회는 예배 사이에 있던 커피타임을 폐지했고, 뉴잉글랜드의 추운 겨울은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는 시간마저 줄어들게 만들었다.

그 시간이 그림다. 사실 교회에서 주고받는 이런 식의 잡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그 시간을 그리워할까? 우정의 범주(category) 아만다 뮐(Amanda Mull)은 디아틀란틱(The Atlantic)지에 실은 글을 통해 주변(peripheral) 관계의 실존을 한탄했다. “코로나는 인간관계를 가족 및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에게로 묶어버렸다. 코로나는 우정의 전체 범주를 증발시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또한 인간의 건강함을 부양하는 기쁨을 고갈시켰다.” 사회과학은 우정의 다양한 범주를 식별하고 또 가장 소중한 관계조차도 우리의 웰빙에

많은 친구들(아콜라와 브리스 길라, 유오디아, 순두계), 그리고 수많은 헌신적인 지지자들이 있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없는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없는 바울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그들의 마음

편지의 결론으로는 약간 이상한 것 같다. 게다가 “쓸 것이 많다”고 말한 후(13절)에 이런 권고를 하는 것은 양피지 낭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인사하는 관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먼저 '친구'를 맞이해야 한다. 단순한 미소와

는 은혜의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전12). 우리의 많은 관계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주로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비슷한 삶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맺은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구속받은 광범위한 사람들과의 접촉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나이가 많거나 또는 더 젊은 사람, 성별이나 인종이 다른 성도들의 관점을 통해 다양한 시련을 겪으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다.

축할 수 있게 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갈6:2)는 큰 일 뿐만 아니라 작은 일을 위한 명령이기도 하다. 초대교회에 보낸 각각의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일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간단한 사실, 회중의 위치와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공통된 정체성에 대한 몇 가지 진술로 시작한다. 이 인사말을 잡담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비슷하다. 그들은 각각 당사자가 처한 고유한 상황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팬데믹 기간 동안 나는 매주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다른 교회 교인과 우정을 나누었다. 우리가 걷는 트레일은 약 30분 정도 걸리는 숲길인데, 처음 20분 동안 우리의 대화는 그냥 말 그대로

잡담 통해 서로 알고 이해하고 기도하던 '주변관계 교제' 사라져 작은 일에 관심 가질 때 더 많은 문제까지도 맡는 권리 얻게 돼

린과 이야기하던 시간이 그림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지만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무슨 모임이냐는 것은 우리 관계의 특징이 아니다. 코로나 관련 팟캐스트 멤버를 선택할 때도 우리는 상대방의 멤버에 속하지 못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다. 단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이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했다. 린에 대한 나의 그리움은 특히 교회에서 나누던 소중한 잡담을 사라지게 만든, 전염병이 가져다준 슬픔의 한 예일 뿐이다.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예배가 끝나면 내가 앉은 의자에 와서 장난을 치던 아이들도 그림다. 그 아이들은 이제 예배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다른 문으로 종종히 떠날 뿐이다. 심대들과 농담하던 때도 그림다. 분홍색 카펫이 깔린 펠로우십 홀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 번에 5분씩 이 사람 저 사람과 얘기하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약한 관계 내지 중간고리 관계 또는 가벼운 관계는 소속감에 기여하고 커뮤니티를 강화하며 심리적 행복을 증가시킨다. 이 범주는 또한 교회에서의 우정을 포함해 우리의 규칙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현대 심리학이 탄생하기 수천 년 전에 예수님과 바울은 모두 다 다양한 범주의 우정이 주는 기쁨을 알고 있었다. 지상 사역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요한)에 대한 특별한 사랑, 세 사람(베드로, 야고보, 요한)과의 친밀한 우정, 열두 명에 대한 깊은 헌신과 일흔 두 명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바울에게도 친애하는 동반자(디모데), 몇 명의 동역자(디모데, 실라, 에바브라), 사랑하는

을 새롭게 하는 수십 개의 느슨한 유대가 없는 그들을 상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때때로 교회에서 우리는 소그룹, 멘토링 관계 또는 책임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라나는 친밀한 우정을 특히 강조한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연결이다. 하지만 관계가 가깝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산이다. 이름을 부르며 친구와 인사하자 요한의 마지막 서신서는 이런 명령으로 끝난다.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요삼 15b).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훈육을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환영의 말(또는 더 좋은 날에는 악수)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스도의 친구는 내 친구라고 말한다. 임의의 개인으로 구성된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조직이다(고전12:18). 각 부분은 먼저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인해 전체에 속한다. 서로를 보고 인정함으로, 비록 아주 작은 울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의 일부로서 각 사람의 정체성을 간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로 간에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한다. 이름을 시작으로 상대에 관해서 알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독특한 은사 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

잡담이다. 날씨 또는 코로나 감염자 수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아이들이나 그녀의 고양이 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교환한다. 거의 차로 돌아올 때가 돼서야 (때로는 실제로 열쇠를 들고 주차장에 서 있는 경우도 있음) 우리는 마침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함께 산책한 몇 달이 지나면서 깊은 말을 나누기 시작하는 시점은 점점 더 빨라졌지만 그럼에도 상호신뢰를 재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느 정도의 잡담이 필요하다. 우리는 잡담을 쓸데없는 수다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사소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신실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진짜 중요한 시련을 만났을 때 필요한 신뢰까지도 구

바울은 편지의 처음 몇 문장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쓴 후 신앙과 삶의 더 깊은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한다. 누군가의 일이나 취미에 대한 일상적인 세부사항에 매수 몇 분을 소비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동료 교인들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결국 그들의 더 많은 문제까지도 맡는 권리를 얻게 된다. 물론 잡담이 사라진 것이 100% 전염병 때문만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현대생활 속 기술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우연하고 계획되지 않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서서히 줄여갔다. '세 조각의 유리: 우리는 왜 스크린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가(Three Pieces of Glass : Why We Feel Lonely in a World Mediated by Screens)'에서 에릭 제이콥슨(Eric O. Jacobsen)은 자동차, 전화 및 TV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를 강화하는 인간 관계를 어떻게 약화시켰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오늘날 스크린 뒤에 숨는 것은 아주 쉽다. 즉, 우연한 대화조차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의도가 있어야 가능한 시대가 됐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약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 잡담 속에서 많은 도전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색한 대화(중요한 문제일 수록 일부러 천천히 언급하는 식의 대화)는 결코 편리하거나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 (Power Point)



라홍채 목사

세미나 안내

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2. 70이레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